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활용한
그로테스크 아트 메이크업 제작

2014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 · 특수분장전공
최 름 쇠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활용한 그로테스크
아트 메이크업 제작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7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 · 특수분장전공


최 름 쇠


인 준 서

최름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7월

심사위원 김 주 력 

심사위원 김 명 구 

심사위원 김 영 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논문개요

현대 예술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그로테스크(Grotesque)와 더 많은 근접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는 보통 애매모호하고 기이하며 믿을 수 없는 현상들을 그로테스크라는 개념을 빌려서 표현한다. 또한 현대 사회는 개인의 차별화된 개성과 독특한 창의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평범한 이미지 보다는 과장되고 괴이하며 독특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로 정형화된 메이크업에서 벗어나 엽기적이거나 괴기스러운 그로테스크함을 추구하려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시대 미술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죽음에 관한 작품과 그로테스크 특성을 다양한 기법과 병치하여 독창적이며 괴기한 아트메이크업으로 재해석하여 제작하고자 한다. 아트메이크업은 창의적인 디자인을 표현하기 위해 발상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작품의 창의적인 표현과 다양한 기법에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국내, 외의 전문서적과 선행논문, 인터넷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였다. 그로테스크의 개념과 필립톰슨(Philip Thomson)이 분류한 4가지 특성인 ‘부조화성’, ‘극단과 과장성’, ‘비정상성’, ‘웃음과 공포성’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골’, ‘죽음’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재해석하여 페인팅 기법과 오브제 기법, 포토샵 기법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작가는 현대미술작가이며 그로테스크한 작품으로 알려진 데미안 허스트로 정하였다.

본 연구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작품 I은 부조화성의 상호 모순되는 것의 조합으로 알약과 죽음을 뜻

하는 해골의 괴기스러움을 ‘우울증’ 이라는 주제로 재해석하여 페인팅 기법과 포토샵 기법을 이용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표현하였다.

작품 II는 죽음의 공포라는 작품과 극단과 과장성을 현실과 비현실의 뒤얽힘으로 ‘공포’의 주제로 재해석하였다. 파리를 모티브로 삶 이면의 죽음 혹은 죽음 이면의 삶을 이질적인 요소와 혼합하여 불균형과 기이함으로 페인팅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III은 비정상성으로 독이라는 작품을 ‘일그러짐’으로 재해석하여 그로테스크의 비정상성으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충돌이 빚어내는 혐오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을 동시에 나타내었다.

작품 IV에서는 인간의 운명 이라는 작품과 웃음과 공포성의 양면성, 죽음이라는 모티브로 기괴함을 ‘두려움’이란 주제로 재해석하여 불안, 공포의 이미지를 페인팅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V는 신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작품을 그로테스크의 부조화성으로 재해석하여 ‘천국과 지옥’이라는 주제로 대립과 충돌, 죽음 앞에서 각기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양면의 해골로 공포스러움을 담아 페인팅 기법으로 나타내었다.

작품 VI은 제발이라는 작품과 그로테스크의 극단과 과장성의 현실, 공상의 세계를 ‘환생’이라는 주제로 왜곡하여 페인팅 기법과 포토샵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VII에서는 그로테스크의 비정상성과 자화상이라는 작품으로 양면적인 것들의 대립과 충돌을 ‘두 얼굴’라는 주제로 재해석하여 페인팅 기법과 오브제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VIII은 데미안 허스트의 망각의 추구라는 작품과 그로테스크의 웃음과 공포성을 재해석하여 괴기스럽고 유희적으로 ‘죽음’이라는 주제로 표현하였다. 작품 VIII에서는 기형성과 공포성을 페인팅 기법과 가면

을 오브제로 사용하여 그로테스크하게 제작하였다. 이와 같은 그로테스크한 작품들이 시각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표현의 무한성과 제약 없는 독창적인 창작활동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그로테스크	4
1) 그로테스크 개념	4
2) 그로테스크의 특성	7
3)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17
2. 데미안 허스트	23
1) 데미안 허스트의 생애	23
2)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26
3. 아트메이크업의 이론적 고찰	35
1) 아트메이크업의 개념	35
2) 아트메이크업의 유형	36
3)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이미지 구성 요소	41
4) 아트메이크업의 표현기법	44
III. 작품 제작	47
1. 제작 의도	47
2. 작품 제작	50
IV. 결론	74

참고 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작품 디자인 계획서	49
<표 2> 작품 I - 디자인 이미지	51
<표 3> 작품 II - 디자인 이미지	54
<표 4> 작품 III - 디자인 이미지	57
<표 5> 작품 IV - 디자인 이미지	60
<표 6> 작품 V - 디자인 이미지	63
<표 7> 작품 VI - 디자인 이미지	66
<표 8> 작품 VII - 디자인 이미지	69
<표 9> 작품 VIII - 디자인 이미지	72

그림 목 차

<그림 1> 지슬라브 백진스키의 작품 I	15
<그림 2> 지슬라브 백진스키의 작품 II	15
<그림 3> 크리스 쿡시, 「Mouth of Hades」	15
<그림 4> 크리스 쿡시, 「Through Death united」	15
<그림 5> 지슬라브 백진스키의 작품 III	16
<그림 6> 지슬라브 백진스키의 작품 IV	16
<그림 7> 그로테스크한 여인	16
<그림 8> John Galliano, 2008, F/W	21
<그림 9> Alexander Mcqueen	21
<그림 10> John Galliano, 2009, F/W	21
<그림 11> Christian Dior, 2003, S/S, I	21
<그림 12> Christian Dior, 2003, S/S, II	22
<그림 13> Christian Dior, 2003, S/S, III	22
<그림 14> John Galliano, 2009, F/W	22
<그림 15> John Galliano, 2003, F/W	22
<그림 16> 데미안 허스트, 「살아있는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	31
<그림 17> 데미안 허스트, 「천년」	31
<그림 18> 데미안 허스트, 「엄마와 분리된 아이」	31
<그림 19> 데미안 허스트, 「양떼로부터 떨어져서」	31
<그림 20> 데미안 허스트, 「심연」	32
<그림 21> 데미안 허스트, 「찬가, 1999-2000」	32
<그림 22> 데미안 허스트, 「속임수」	32

<그림 23> 데미안 허스트, 「천사의 해부학」	32
<그림 24> 데미안 허스트, 「인간의 운명」	33
<그림 25> 데미안 허스트, 「죽음의 공포」	33
<그림 26> 데미안 허스트, 「제발」	33
<그림 27> 데미안 허스트, 「신의 사랑을 위하여」	33
<그림 28> 데미안 허스트, 「알약」	34
<그림 29> 데미안 허스트, 「독」	34
<그림 30> 데미안 허스트, 「자화상」	34
<그림 31> 데미안 허스트, 「망각의 추구」	34
<그림 32> 페이스 페인팅 I	39
<그림 33> 페이스 페인팅 II	39
<그림 34> 환타지 메이크업 I	39
<그림 35> 환타지 메이크업 II	39
<그림 36> 바디페인팅 I	40
<그림 37> 바디페인팅 II	40
<그림 38> 바디페인팅 III	40
<그림 39> 작품 I - 부조화성	52
<그림 40> 작품 II - 극단과 과장성	55
<그림 41> 작품 III - 비정상성	58
<그림 42> 작품 IV - 웃음과 공포성	61
<그림 43> 작품 V - 부조화성	64
<그림 44> 작품 VI - 극단과 과장성	67
<그림 45> 작품 VII - 비정상성	70
<그림 46> 작품 VIII - 웃음과 공포성	73

I. 서론

현대인들은 산업화와 매스미디어(mass media)의 발달로 인해 복잡해진 구조 속에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며, 나름의 자아정체성을 찾기 위해 개성화, 독특함, 다양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오늘날 예술과 메이크업(make-up)에 있어서 괴기스러움, 흥측함, 우스꽝스러움을 뜻하는 그로테스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그들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로테스크(Grotesque)한 요소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예술과 메이크업은 관습적이고 보편적인 순수한 미적 창작물이 높게 평가되었고, 그러한 예술가들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으나 현대에 와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¹⁾ 기존의 보편타당한 창작물들은 자극적이고 혁신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는 대중들과 예술가들의 욕구를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이 그로테스크한 창작물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술 양식으로 시작되어 미학적 측면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는 그로테스크는 현대문명 특유의 현상이 아니며 서구에서는 최소한 로마 초기 기독교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예술양식이다. 하지만 예전의 그로테스크에 대한 연구는 부조화나 희극적인 것의 조잡한 형태 정도로 치부되어 산발적으로 몇 번의 시도가 있었을 뿐,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았다. 20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몇몇 학자들에 의하여 미학적 개념으로서 그로테스크가 체계적으로 논의 되었다.²⁾

1) 강경희(2006), 장폴 고티에의 패션쇼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메이크업의 표현 특성,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2.

2) 필립 톰슨, 김영무 역(1986), 「The Grotesque」, 서울대학교 출판부, pp.14-15.

일반적으로 그로테스크는 이질적인 것의 결합으로 이해하지만, 인간과 동·식물의 결합은 그로테스크의 고전적인 예로서 그것을 접한 사람에게 공포와 웃음, 천박함과 두려움, 혐오감과 매력 등의 이질적인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그로테스크는 ‘환상적 괴기성’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과장과 왜곡, 지나친 면밀함으로 괴기미를 드러낸다.³⁾

그로테스크는 오늘날과 같이 다양성과 차이가 존중되고 독창성이 그 무엇보다 높이 평가되며 새롭고 복잡한 미의식과 취향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그로테스크가 과거의 부정적이고 단편적인 의미를 넘어 가치 있고 흥미로운 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항상 새로움과 독창성을 요구받는 메이크업계에 있어서 그로테스크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무의미한 시도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미술작가이자 그로테스크한 작품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의 작품의 미적가치를 분석하여 그로테스크의 특성 부조화성, 극단과 과장성, 비정상성, 웃음과 공포성으로 재해석해 기괴하고도 나름의 상징성과 이질적인 것들을 연계시켜 아트메이크업으로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새로운 시각적 표현 언어의 가능성과 아트메이크업을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그로테스크의 개념과 특성,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고찰 그리고 그로테스크한 메이크업 작품, 문헌 자료 및 선행 논문, 사진 자료, 인터넷 사이트 등을 참고로 활용하였다.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인 ‘알약’, ‘죽음의 공포’, ‘독’, ‘인간의 운명’, ‘신의 사랑을 위하여’, ‘체벌’, ‘자화상’, ‘망각의 추구’ 등 데미안 허스트 작품의 모티브(motive)인 죽음과

3) 김한나(2012), 식물의 그로테스크 표현을 중심으로 한 장신구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

해골의 ‘어울리지 않는 것들의 융합, 형태의 변형과 분리’의 특성을 담아 총 8점의 아트메이크업으로 재해석하여 메이크업이 제작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그로테스크

1) 그로테스크 개념

그로테스크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 동물, 꽃, 과일 등을 포함하는 아라베스크 무늬를 뜻하며, 이탈리아어로 보통의 그림에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를 장식하기 위한 색다른 의장(意匠)을 가리키는 것이었다.⁴⁾ 그로테스크는 ‘그로테스크하다’로 이탈리아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동굴 혹은 발굴이라는 의미의 ‘그로타(Grotte)’에서 그것의 형용사인 ‘그로테스코(Grottesco)’와 명사형인 ‘그로테스카(Grotesca)’에서 생겨났다.⁵⁾ 그로테스크는 16세기까지 장식술의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장식에서 나타난 양식으로 기괴하고 유머러스하며 공포를 자아내는 장식을 위한 스타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즉 그로테스크란 어떤 미학적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잘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병치시키는 하나의 장식적 기법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⁶⁾

또한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형태로 채워진 부분이라는 의미와 함께 역설이나 기괴함, 우스꽝스러움에 대한 편애를 통해 왜곡되거나 희화화된 모든 낯선 표현을 의미하며 일그러진 형상(Deformation), 파괴(Destruction), 해체(Decomposition)를 통해 비자연적으로 묘사해 악마나 죽음과 같이 부정적이고 괴기스러운 이미지도 그로테스크하다 할 수 있다.⁷⁾ 또한 그

4) Cyber 두산백과, www.doopedia.co.kr, (2014. 3. 1)

5) 이유영(1982), *한독 문학 비교 연구*, 삼영사, p.122.

6) 함순용(2010), *고야 관화연작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22-23.

7) 변영희(2003), *현대 메이크업에 표현된 추(醜)이미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로테스크는 비극적이고 구역질나거나 흉한 모습에서 느끼는 공포와 동경, 메스꺼움을 느끼는 것이며,⁸⁾ 괴상하거나 비현실적인 미술양식을 지칭하는 말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우스꽝스러운 특징만을 의미하는 형용사로 쓰이게 되었다.⁹⁾

1986년에 발표된 「The Grotesque」의 저자인 필립 톰슨(Philip Thomson)은 그로테스크의 현대적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학작품에서의 그로테스크란 기괴하고 메스꺼우면서 희극적이고 즐거운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것, ‘무섭게 소름끼치는 내용과 희극적인 표현 양식 사이의 충돌’이 빚어내는 감흥이라 하였다. 쾌와 불쾌, 웃음과 공포와 같은 양립 불가능한 이질적인 요소들이 대립적으로 혼재해 있는 이미지, 양식, 또는 사건을 지칭하는 동시에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특정 반응, 즉 호기심과 혐오감의 양면성의 감흥을 가리킨다. 또한 이질성, 양면성, 복수성의 공존과 충돌로부터 그로테스크 미학이 수립되는데 그것은 과대, 과장, 과도(過度), 과잉과 같이 정도가 지나친 초과적인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정의하였다.¹⁰⁾ 크리스찬 톰젠(Christian W. Thomsen)의 그로테스크에 대한 정의에서는 갈등, 충돌, 이질적인 것의 결합, 혹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의 융합으로 인한 부조화와 아이러니(irony)와 패러독스(paradox)와 같은 갈등이나 대립을 수반한 희극적인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끔직한 것, 정상적인 것을 벗어난 과장과 극단, 그리고 공상적이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불쾌함을 동시에 체험하는 비정상성을 그로테스크로 규정하고 있다.¹¹⁾

그로테스크의 개념은 고대 장식미술의 한 양식에서 유래되었으며 수세기

석사학위논문, p.50.

8) 필립 톰슨, 김영무 역(1986), 전계서, p.24.

9) 허창운(1997), 「프로이트의 문학예술이론」, 민음사, p.398.

10) 필립 톰슨, 김영무 역(1986), 전계서, pp.1-4.

11) 상계서.

에 걸쳐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어 오늘날에 와서도 그 정의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그로테스크의 개념은 허구와 실제 사이를 오가거나 함축하는 것이며, 아름답게 추함(Beautifully Ugly)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2) 그로테스크의 특성

그로테스크의 기원인 16세기에 발굴된 로마시대의 벽장식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환상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 또 이시대의 그로테스크로부터 영향을 받은 다른 예술 작품들은 기묘하고 부조화스러우며, 자연 질서에 대립하는 특성을 지닌다.¹²⁾ 17세기에 그로테스크는 경멸적 의미가 더해져 저급한 우스꽝스러움, 즉 유희적 특성을 주로 가진다고 여겨졌으며,¹³⁾ 18세기에 17세기에 대두되었던 유희적인 특성으로 인해 그로테스크함이 조금 더 복합적이고 모순되는 특성으로 혼재해 나타났다.¹⁴⁾

「영문학의 그로테스크(The Grottesque in English Literature)」에서 클레이버러(Arthur Clayborough)는 밝힌 바에 따르면, 그로테스크한 양식의 예술이 갖는 특성은 엉뚱함, 환상, 개인의 취향 그리고 자연스러운 상태의 질서에 대한 거부이며 비웃음과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었다.¹⁵⁾ 또 그로테스크를 희극의 하부개념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천박한 유희와 같은 것으로 분류하지만, 비극성에 주목하는 사람은 괴기와 신비, 심지어 초자연적 영역으로까지 받아들인다. 두 극단적 반응의 혼재 사이에 존재하는 미해결의 측면이 그로테스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¹⁶⁾ 그로테스크의 특성에 대해 슐레겔(Schlegel)은 그로테스크를 상반된 의미가 결합한 희극과 연관시키면서 암울하면서도 우스꽝스러움이 공존하는 혼란스러운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고, 장 파울이 정의한 그로

12) 해럴드 오즈본, 한국미술연구소 역(2002), 「옥스퍼드 미술사전」, 시공사, p.44.

13) 필립 톰슨, 김영무 역(1986), 전계서, p.17.

14) 볼프강 카이저, 이지혜 역(2011),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아모르문디, pp.59-62.

15) 상계서.

16) 신용준(2008), 그로테스크 아트퍼니처에 관한 연구: 기형적 형태의 아트퍼니처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

테스크 역시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로테스크를 유머의 구성요소라 하고 있지만 그가 말하는 유머는 이전의 그로테스크의 특성으로 치부되었던 우스꽝스러움과는 다른 의미로 고뇌에 찬 웃음으로 특징지으며 상반된 의미의 요소들을 혼합한 의미로 보았다.¹⁷⁾

빅토르 위고(Victor-Marie Hugo)는 이전에 여러 학자들이 부여한 그로테스크의 특성에 기형과 공포, 추(醜)라는 요소들을 추가하였다. 이로써 그로테스크에 대한 의미와 특성의 범위가 보다 유연해지고 넓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18세기에 대두된 그로테스크의 개념적 특성은 상반되는 요소들의 공존, 즉 모순적인 동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¹⁸⁾

19세기 헤겔(Hegel)은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여러 가지 영역을 부적절하게 혼합한 것, 무절제와 왜곡, 하나의 특정한 요소를 부자연스럽게 복제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였으며, 헤겔 외의 학자들은 대부분 단순히 기이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그로테스크를 일축하며 유희적인 특성만을 강조하였다.¹⁹⁾ 카이저(Wolf. Kayser)가 말하는 그로테스크한 세계란 명확히 구별되는 것들이 뒤섞이고 물리적 질서가 무너져, 본질이 불분명해지고 자연스러운 비율이 왜곡 되어 나타나는 것을 특성으로 들었다.²⁰⁾ 그로테스크의 구조적 본질은 생경(生梗)해진 세계이며, 이러한 세계는 익숙하던 주변 환경이 어떤 변화를 거쳐 낯설고 섬뜩하다 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예술 작품 틀은 의미나 도덕적 잣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불합리하며 그와 동시에 유희성을 나타내기도 한다.²¹⁾ 슈피처(Spitzer) 역시 카이저와 톰슨(Thomson)과 마찬가지로 그로테스크가 유희성과 공포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불합리한 특성을 가진다고

17) 박선영(2013), 현대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1.

18) 볼프강 카이저, 이지혜 역(2011), 전계서, pp.96-107.

19) 상계서.

20) 상계서.

21) 상계서.

하였다. 반면 에코는 그로테스크를 추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혐오성과 공포성을 두드러지는 특성으로 주장하였다.²²⁾ 카이저는 그로테스크를 나타내는 모티브의 예로 인형, 기계적인 인간, 꼭두각시로 경직된 신체, 무표정한 얼굴과 가면으로 경직된 얼굴을 들고 있다. 꼭두각시나 자동인형에는 잠재적으로 그로테스크한 것이 있다. 인간처럼 생겼는데 사실상 생명이 없는 이 물체들은 희극적이면서 동시에 섬뜩하기 때문이다.²³⁾ 즉 기계적인 것과 유기체적인 것이 결합되는 특이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균형과 기이함을 그로테스크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²⁴⁾ 그로테스크의 특성은 다른 것들이 어울리지 않는 융합, 과장되고 비정상적이고 비극적이면서 희극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반응이 엇갈리는 가느다란 경계선이 그로테스크의 대표적인 특성인 것이다.²⁵⁾ 현대 예술에서의 그로테스크는 형태의 변형과 분리, 신화적이고 제의적인 행위, 신체를 오브제로 나타내는 것, 메커니즘과의 결합, 마지막으로 폭력에 관한 영상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²⁶⁾ 그로테스크의 현대적 정의를 시도한 필립 톰슨의 분류를 바탕으로 하여 그로테스크의 특성 부조화성, 웃음과 공포, 극단과 과장성, 비정상성으로 분류하고 이를 중심으로 그로테스크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2) 필립 톰슨, 김영무 역(1986), 전계서, pp.27-79.

23) 조은영(2003), 비어즐리 작품을 통해 본 조형적 방법론으로서의 그로테스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9.

24) 윤성혜(2007), 그로테스크 표현을 통한 World of Warcraft와 리니지II의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7.

25) 박선영(2013), 전계서, p.12.

26) 박성민(2013), 부정감정의 범주와 관람자의 예술적 가치 평가에 대한 고찰,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0.

(1) 부조화성

그로테스크의 가장 큰 특징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부조화라는 기본 요소이다. 부조화는 갈등, 충돌, 이질적인 것의 혼합, 혹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의 융합 등으로서 이러한 부조화가 예술작품 자체에서만 유발하는 반응 속에서도 예술가의 창조적 기질과 심리적 구조 속에서도 발견되어 왔다.²⁷⁾ 부조화성은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작품을 표현하고, 전달하려는 이미지를 충실히 표현하는 것이 아닌 상반되고 이질적인 성향이 강한 소재 혹은 전혀 무관한 것들을 선택해 양분화 시켜 낯설게 보이게 하고 당황스러움 내지는 끔찍한 자극을 받게 된다.²⁸⁾ 왜곡이나 불일치, 과장과 어리둥절하게 함, 패러독스와 비이성적인 것을 사용하는 그로테스크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부조리를 폭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²⁹⁾ 이러한 부조화의 특성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들의 조합으로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 탄생과 죽음 등의 이중적인 분배의 표현으로 해석된다.³⁰⁾ 톰슨은 그로테스크의 부조화성에 대해 인간과 비인간의 결합, 남성과 여성의 모호한 표현 등과 같이 갈등, 충돌, 이질적인 것의 결합, 상호 모순되는 것들의 조합에 의한 불균형과 기이함이라고 하였다.³¹⁾ 이러한 부조화는 작품 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작품이 유발하는 반응 속에서, 그리고 예술가의 창조적 기질과 심리적 구조 속에서도 나타난다.³²⁾ 카이저는 그로테스크의 부조화성을 ‘소외된 세계(entfremdete

27) 필립 톰슨, 김영무 역(1986), 전게서, pp.27.

28) 박희정, 간호섭(2013), Damien Hirst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37권 제3호 통권233호, pp.399-412.

29) 이영희(2007), 그로테스크적으로 표현된 아트메이크업에 관한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6.

30) 박희정, 간호섭(2013), 전게서, p.403.

31) 이선화(2011),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조형성, 복식학회지, 제61권 제5호 통권154호, pp.34-47.

32) 이진모(1989),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한 표현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4.

Welt)’ 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즉, 양면적인 것, 대립적인 것들의 충돌로 인해 친숙했던 것이 갑자기 낯설게 되어 당황하고 불안을 느끼게 되면서 긴장과 당혹스러움, 무서움과 낯섬, 부조화, 불일치의 조합을 그로테스크의 부조화성이라고 정의하였다.³³⁾

(2) 극단과 과장성

과장이란 어떠한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표현하는 것이며,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과장은 평소에 가장 많이 접하는 친숙한 요소로서 가장 충격적인 시각적 충격을 주는 것으로, 신체의 일부를 집중적으로 과장한 육체적 과장 즉 신체를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것을 말한다.³⁴⁾ 또한 과장은 유동적인 움직임과 과장된 행동, 과장된 신체 표현이 평소 우리가 무심히 생각하고 지나쳐 버린 것들을 부각시켜 보여줌으로써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³⁵⁾ 그러므로 그로테스크는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과장이나 극단적 요소로 표현되어진다고 여기며 이러한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인해 그로테스크를 공상적이고 환상적인 것으로도 연관 지을 수 있다.³⁶⁾ 극단과 과장성에서 같은 연관선상에 있는 ‘공상적’ 이라는 것은 단순하게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부터의 뚜렷한 일탈을 의미하는 것이며,³⁷⁾ 그로테스크가 과장된 공상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가치 질서를 위배하는 현실과 비현실의 뒤얽힘이 극단적인 과장으로 표현되어 현대인들에게 낯설지만 신선한 충격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³⁸⁾

33) 이선화(2011), 전계서, p.37.

34)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9604&cid=272&categoryId=272>, (2014. 4. 23)

35) 김보영(2013), 그로테스크적 기형성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연구, 동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8.

36) 김영진(2004), 화예조형에서의 Grotesque Image 표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2.

37) 김보영(2013), 전계서, p.9.

그로테스크의 극단과 과장성에 대해 멘싱(Gerhard Menshing)은 「현대극에서의 그로테스크」라는 그의 논문에서 그로테스크를 보증하는 표지는 공상과 사실의 의식적인 뒤얽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학자 토마스만(Thomas Mann)은 그로테스크가 극단적인 것이며, 철저하게 현실적인 것으로 자의, 오류, 반 현실,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극단적인 왜곡과 과장을 통한 공상적인 세계의 표현으로 현실을 더욱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⁹⁾

(3) 비정상성

비정상성이란 정상상태를 벗어난 부자연스러움의 특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한편으로는 우습고, 일상적인 용례(用例)속에서 ‘재미있는’과 ‘이상한’을 동시에 나타내며 무섭거나 역겨움을 의미한다.⁴⁰⁾ 비정상성은 새로운 것에 대한 기쁨과 정상적인 것에서 보는 재미로 일단 비정상의 정도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친숙하지 않은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로 바뀌게 된다. 비정상성은 공인된 기준과 규범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당했다고 여겨지면 공포가 되는 것이다.⁴¹⁾ 예술 작품에서 그로테스크는 예술가와 수용자 사이에 정상적, 습관적, 익숙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전제로 한다. 그로테스크는 일종의 희극적인 요소들이 담긴 여러 모순들의 해결 안 된 충돌이며, 양면성을 지닌 비정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로테스크의 근본적인 비정상성과 그 비정상이 표현된 직접적이고 과격한 방식 때문에 그로테스크는 저속하고 거칠고 예외범절에 대한 모욕으

38) 박희정, 간호섭(2013), 전계서, p.404.

39) 이해람(1988), Thomas Mann의 초기단편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현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2.

40) 필립 톰슨, 김영무 역(1986), 전계서, pp.33-36.

41) 상계서.

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⁴²⁾ ‘사실’ 과 ‘정상’ 에 대한 모독이라든지 도덕적 색채가 감소된 멋없고 쓸데없는 왜곡, 억지스럽고 무의미한 과장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정상성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 정상적이지 않은 과장이나 극단적 요소로 표현되어지고 비정상적인 즉 기괴한 형상으로 왜곡되거나 과장된 형상을 비정상성으로 정의 할 수 있다.⁴³⁾

(4) 웃음과 공포성

웃음과 공포성은 희극적인 것과 끔찍스러운 혹은 혐오스럽거나 불쾌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양면성으로 과거에는 천박한 우스개 및 익살맞은 풍자와 같은 희극적인 것과 괴기나 신비, 심지어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끔찍스러운 것 혹은 골치 아픈 것으로 극단적으로 분류하고 있다.⁴⁴⁾ 웃음과 공포성이 현대에 이르러 혼합형식을 띄게 되면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내재한다는 것이 다른 문학적 양식이나 범주들과 구별지어주는 그로테스크의 두드러진 특징이다.⁴⁵⁾ 또한 공포성은 비극적인 동시에 희극적이라 할 수 있으며, 혼란스러운 현실세계에 대한 반응으로서 본능적이고 자위적(自衛的)인 심리라고 할 수 있다.⁴⁶⁾

그로테스크의 웃음은 그 자체 신랄함이 뒤섞여 있으며, 그것은 점차 경멸적이며 조롱적이고 마침내는 악마적인 웃음의 특성을 갖게 된다. 이는 혼란하고 불안한 현실세계에 대한 조롱과 비판의 모습을 우스꽝스러운, 놀라움, 당혹감 또는 공포감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⁷⁾ 독일의

42) 상계서.

43) 박희정, 간호섭(2013), 전계서, p.404.

44) 상계서.

45) 상계서.

46) 신지은(2001), 조형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적 표현과 신체성에 관한 연구: 프란체스코 클레멘테(Francesco Clemente)와 신디 셔먼(Cindy Sherman)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2-24.

47) 박희정, 간호섭(2013), 전계서, p.405.

낭만주의 작가 장폴(Jean Paul)은 그로테스크는 유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며 유머는 현실의 폐단을 경멸하고 폭로하면서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로테스크와 중첩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그로테스크에 내제한 양면성은 앞서 나타났듯이 이질적인 요소들의 혼합 속에서 희극적인 것과 끔찍스러운 것의 공존을 의미한다.⁴⁸⁾ 또한 일상규칙의 위반, 이질적 요소의 도입, 무지, 외설, 하락, 강조, 변형, 모순, 부조화를 통해 보는 이에게 놀라움, 쾌감, 우월감을 느끼게 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특성을 갖고 있다.⁴⁹⁾ 웃음에서 생겨나는 유희는 ‘긴장’ 과 ‘쾌락’ 과 ‘재미’ 라는 논리적 해석이 불가능한 요소가 본질을 규정하는 것으로 ‘진지함이 아닌 것’ 을 유희라 말하고 있다.⁵⁰⁾ 즉 웃음에서 나타나는 유희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흥미의 세계, 감흥의 세계, 착각의 세계로 그려지며,⁵¹⁾ 이러한 환상의 세계를 그린 것이 곧 낭만주의 예술에서 보여지는 그로테스크함이라 할 수 있다.

48) 권하진(2011), 현대 패션에 표현된 골계미(滑稽美),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26.

49) 이경은(2007), 메이크업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에 관한 연구 : 2001년~2005년 파리 컬렉션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64.

50) 강경희(2006), 전개서, p.44.

51) 양희석(1980), 「예술철학사(上)」, 자유문고, p.40.



<그림 1> 지슬라브 백진스키의 작품 I
 (출처-<http://www.beksinski.pl/>)
 (검색일: 2014. 3.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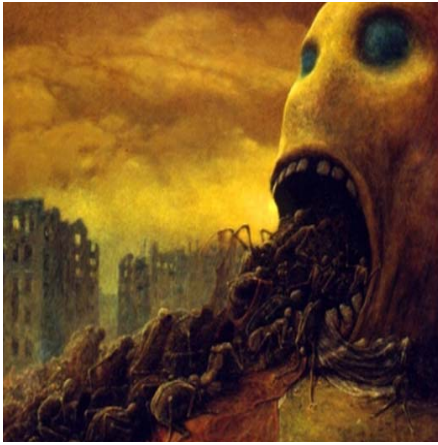
<그림 2> 지슬라브 백진스키의 작품 II
 (출처-<http://www.beksinski.pl/>)
 (검색일: 2014. 3. 22)



<그림 3> Mouth of Hades
 (출처- Kris Kuksi: Divination and Delusion,
 beinArt Publishing, 2010, p.124)



<그림 4> Through Death united
 (출처- Kris Kuksi: Divination and Delusion,
 beinArt Publishing, 2010, p.121)



<그림 5> 지슬라브 백진스키의 작품 III
(출처-<http://www.beksinski.pl/>)
(검색일: 2014. 3. 22)



<그림 6> 지슬라브 백진스키의 작품 IV
(출처-<http://www.beksinski.pl/>)
(검색일: 2014. 3. 22)



<그림 7> 3퀸텐 마세이스의 “그로테스크한 여인”
(출처- 추의 역사, 움베르토 에코 저, 2008, p.27)

3)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19세기 이후 여성만의 전유물이 되었던 메이크업은 20세기 중반 페미니즘(feminism) 운동과 히피(hippie), 펑크(punk), 동성애 문화 등 일련의 하위문화를 통해 남녀 모두에게 다시 행해졌으며, 그로테스크적인 아트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⁵²⁾ 그로테스크에서의 메이크업은 기존의 정형화된 메이크업과는 달리 혐오스럽고 반항적이며 끔찍스럽고 기괴함을 형성하는 이미지 등을 표현하여 반미학적인 추의미를 추구하는 또 다른 미적 쾌감을 유발하고 있다.⁵³⁾ 1970년대 후반 런던(London)에서 시작된 펑크는 기존의 아름다움에 반기를 들어 머리와 얼굴에 문신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스타일(Style)들을 절충하면서 충격과 놀라움, 혐오스러움을 불러일으켰다.⁵⁴⁾ <그림 11>처럼 당시 그로테스크한 메이크업에서는 잘 행해지지 않았던 검정 입술화장, 검정이나 흰색의 매니큐어(manicure), 검정, 노랑, 흰색의 블러셔(blusher) 등 검은 색을 사용해 죽음, 절망, 공포, 공허를 표현하였다.⁵⁵⁾ 그로테스크는 형식과 소재 면에서 두드러진 대조와 이질적인 요소들의 결합으로 우스꽝스러우면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데 파라독스(Paradox)의 힘을 지닌 극히 상호 모순되고 부자연스런 요소들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로테스크는 회화와 조각, 건축 등 조형 예술뿐만 아니라 패션과 디자인, 메이크업, 무대 의상,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까지 그 미적 가치가 확대되어 선에 의한 디자인원리를 잘 적용한 혐오스러운 분장을 나타내게 된다.⁵⁶⁾ 그로테스크가 희극적인

52) 김양은(2004), 선을 강조한 아트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9.

53) 이정아(2002),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7.

54) 장미숙, 양숙희(2000), 1990년대 후반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 메이크업 광고와 컬렉션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제8권 제3호, pp.436-449.

55) 상계서.

것과 비극적인 것이 혼합되어 당혹스럽고 무섭게 작용하며, 악마적 요소, 인간과 동물, 놀라움과 환멸감 등에 의한 형식과 이질적인 요소들의 융화되지 않는 혼합 등을 통해 메이크업의 기존의 미의 관념을 변화시킨다. 그로테스크한 메이크업은 놀라움과 환멸감을 느끼게 하여 미를 둘러싼 예술과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비평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⁵⁷⁾

(1) 부조화성 이미지

그로테스크한 특성 중 메이크업에 나타난 부조화성 이미지는 이질적인 것끼리 결합, 상반된 디자인과 소재의 결합, 인간과 동물의 결합, 가상 공간과의 결합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⁵⁸⁾ <그림 8>은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패션쇼(fashion show)를 통해 패션 메이크업에서의 정형화된 메이크업이 아닌 이질적인 것의 혼합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소재를 사용하여 환타지(fantasy) 메이크업의 특성과 그로테스크의 부조화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9>에서는 흰색의 깃털을 오브제(objet)로 사용, 흰색의 칼라를 입술에 포인트를 주었다. 깃털에서 주는 동물적인 요소와 붉은 색의 부조화스러움이 인위적인 불일치의 조합을 나타내고 있다.

(2) 극단과 과장성 이미지

메이크업에서의 극단과 과장성은 비정상적인 것을 변형하여 정상적인 것으로 변화시켜 표현하거나, 대립된 변형이나 왜곡으로 독특한 기형성과 불균형으로 나타내고 소름끼치는 형태로 괴상하게 창작하여 공격적

56) 김양은(2004), 전계서, p.49.

57) 이영희(2007), 전계서, pp.35-36.

58) 이선화(2011), 전계서, p.43.

이고 때로는 불쾌함을 주는 것을 말한다.⁵⁹⁾ <그림 10>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왜곡되거나 사실과 공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낯설은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림 11>은 플라스틱(plastic)의 조형물을 가발로 사용하여 기괴하게 표현하였으며, 과장되게 표현된 눈 화장과 인위적으로 검게 칠한 입술은 공격성과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검정색상이 주는 파괴적이며 괴기스러움을 동시에 나타내 전통적인 가치관을 파괴하고 인간 내면의 고통과 사회적 모순을 표출하는 방법의 수단으로 나타내고 있다.

(3) 비정상성 이미지

메이크업에 나타난 비정상적인 이미지는 양면적인 또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반응의 엇갈림으로, <그림 12>에서 볼 수 있다. <그림 13>의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S/S 컬렉션(Spring & Summer collection)에서는 동양적인 문양과 색조를 사용 기존의 얼굴의 곡선을 변형하여 괴기스러우며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블랙(black)의 섀도우(shadow) 형태와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부자연스러운 흰색의 피부와 억지스럽게 왜곡시킨 눈썹의 형태를 그로테스크하면서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메이크업에서 비정상성으로 악마스러운 문양이나 과감한 색채 사용으로⁶⁰⁾ 슬픔, 죽음 그리고 타락 등을 나타내 삶의 공포를 직시하고 현실세계에 대한 반항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4) 웃음과 공포성 이미지

메이크업에서 나타난 그로테스크한 웃음은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단순한 유머나 유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⁶¹⁾ 또한 메이크업

59) 상계서.

60) 강경희(2006), 전계서, p.45.

에 나타난 웃음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형화된 메이크업과 달리 일종의 반미화적인 이미지로 해학적이고 유희적이다. 장난스러운 회화적 기법과 다양한 컬러 콤비네이션(color combination)을 이용하여 보는 이에게 즐거움을 유발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형화된 메이크업과 달리 일종의 반미화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해학적 메이크업을 새로운 미적 감수성의 하나로 인식하기도 한다. 메이크업에서의 웃음은 장난스러운 회화적 기법을 도입하여 얼굴의 조형요소를 무시함으로써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게 하여 심각한 의미들이 사라진 재미거리를 주기에 충분하다.⁶²⁾ <그림 14>는 존 갈리아노의 F/W 컬렉션(Fall & Winter collection)에서 보여진 파스텔 톤(pastel tone)의 화사한 피부표현과는 대조적으로 눈 주위를 검정 색연필로 낙서를 한 듯이 불안정한 선을 넣어 줌으로써 그래픽(graphic)적인 아트(art)로 유쾌함과 불쾌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그림 15>에서는 자칫 광대의 얼굴을 보는 듯한 과장된 눈썹, 볼터치, 그리고 볼에 그려진 패턴이 희극적이며 가벼움과 장난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작품으로 익살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웃음과 공포성을 지닌 메이크업은 독특한 개성과 얼굴의 조형요소를 무시하며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게 하여 흥미거리를 줄 수 있다. 즉 기존의 정형화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메이크업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주어, 이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보다는 촌스럽고 바보스런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⁶³⁾

61) 서승미(2003),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이미지,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5권 제2호 통권22호, pp.137-144.

62) 이경은(2006), 전계서, p.165.

63) 강경희(2006), 전계서, p.44.



<그림 8> John Galliano 2008, F/W
(출처- <http://vogue.co.kr>)
(검색일: 2014. 4. 3)



<그림 9> Alexander McQueen
(출처-<http://www.style.co.kr>)
(검색일: 2014. 4. 3)



<그림 10> John Galliano, 2009, F/W
(출처- <http://vogue.co.kr>)
(검색일: 2014. 4. 3)



<그림 11> Christian Dior, 2003, S/S
(출처-<http://www.style.co.kr>)
(검색일: 2014. 4. 3)



<그림 12> Christian Dior,S/S.2003.II
 (출처- forums the fashionspot.com)
 (검색일: 2014. 4. 3)



<그림 13> Christian Dior,S/S.2003.III
 (출처- forums the fashionspot.com)
 (검색일: 2014. 4. 3)



<그림 14> John Galliano, 2009, F/W
 (출처-http://www.style.co.kr)
 (검색일: 2014. 4. 3)



<그림 15> John Galliano, 2003, F/W
 (출처- http://vogue.co.kr)
 (검색일: 2014. 4. 3)

2. 데미안 허스트

1) 데미안 허스트의 생애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1965~)는 영국 남서부 지방인 브리스톨(Bristol)에서 태어나 요크셔(West Yorkshire)의 리즈(Leeds)에서 자랐으며⁶⁴⁾ 허스트의 어머니 메리 브레넌(Mary Brennan)은 예술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종종 그림을 그렸다. 꽃집에서 일했던 어머니는 허스트가 어릴 적 그림을 그리며 놀다가 종이를 다 썼다고 말하면 테이프(tape)으로 다른 종이를 이어 붙여 더 큰 화면을 만들어 주곤 했다. 이러한 허스트의 어릴 적 경험은 그가 예술가로서 생각을 확장하는데 자양분이 되었다.⁶⁵⁾ 리즈에서 자란 허스트는 외할머니 에일린(Eileen Brennan)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외할머니는 허스트에게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그것은 산타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사실과 같이 현실적인 것이었으며, 허스트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⁶⁶⁾ 허스트는 사춘기 시절 펑크음악에 매료되어 방황의 시기를 보냈는데 그러한 허스트의 반항을 참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허스트가 좋아했던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의 레코드판을 전자렌지에 녹여 과일 그릇으로 만들어버리거나 펑크의 유행을 따르던 체인달린 바지를 잘라버리는 등 그를 엄격하게 통제했다.⁶⁷⁾ 그러나 아들의 드로잉에 대한 취미는 존중해주었기에 미술은 허스트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과목이 되었다. 허스트는 미술 선생님의 대학 권유로 골드스미스 대학교(Goldsmiths, University of

64) 네이버 백과사전, <http://blog.naver.com/chanwoolee/10051>, (2014. 4. 23)

65) 데미안 허스트와 고든 굽기(2002), 『출근길에』, 우주출판, p.31.

66) 상계서.

67) 김윤영(2012), 데미안 허스트의 약 시리즈 연구 : 1988-2005년 작품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

London)와 세인트 마틴스(St. Martins), 카디프(Cardiff)의 미술대학에 지원했지만 낙방하였다.⁶⁸⁾ 그 후 허스트는 리즈의 제이콥 크라머 컬리지(Jacob Kramer College)에서 1년 동안 아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미술을 공부하기 시작했다.⁶⁹⁾ 1986년부터 1989년까지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에서 수학한 후 설치, 조각, 회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동시대 미술가이다.⁷⁰⁾ 데미안 허스트의 죽음에 관한 관심은 일찍이 그가 16세가 되던 해 시체를 스케치하러 병원 영안실에 드나들면서 잘려진 머리 옆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을 때부터 죽음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다. 허스트는 당시 훤친 병리학 교과서에 있는 그림에 매혹되었는데, 이것들이 그에게는 공포와 아름다움을 결합시킨 이미지라고 느꼈기 때문이었다.⁷¹⁾ 영안실의 시체를 접하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보편적인 주제를 동시대성에 인접한 시각으로 해석하였다.⁷²⁾ 데미안 허스트는 영국의 예술가이자 현대미술의 전설이며 yBa(Young British artists)로 불리고 있으며, 죽음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충격적인 이미지와 엽기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⁷³⁾ yBa는 영국 미술의 발전을 저해했던 보수적인 사고와 고답적(高踏的)인 절차를 타파하고, 대중문화와 매스미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특정계층이 향유하던 고급문화의 영역에 머물러있던 영국 현대미술을 전 세계 각층의 관객들이 즐길

68) 상계서.

69) 상계서.

70) 홍정현(2011),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작업에 나타난 '상실'의 미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

71) 양은혜(2010), 사회 속에서 나타난 '보호'의 표현방법연구: 수족관 이미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5.

72) 이현지(2012), 동시대미술에서 나타나는 특성연구: yBa 작가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5-26.

73) 네이버, 두산백과, <http://blog.naver.com/chanwoolee/10051>, (2014. 4. 23)

수 있는 문화로 국제화 시켰다고 평가 받고 있다.⁷⁴⁾

yBa의 등장을 계기로 권위적인 미술계에서는 젊은 피를 수혈하고자 하는 요구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영국 현대미술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⁷⁵⁾ 1988년 여름 골드 스미스 학생들과 함께 기획한 ‘프리즈(Freeze)’ 전을 계기로 주목을 받기 시작해⁷⁶⁾ 영국 현대미술의 부활을 이끌어 내는 주역으로서 yBa군단으로 일컬어지며 미술계를 장악했다.⁷⁷⁾ 그 후 1991년 런던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으며 1995년 ‘살아 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The Physical Impossibility of Death in the Mind of Someone Living, 1991)’ 이란 작품으로 런던의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에서 해마다 최고의 작가에게 시상하는 터너상(Turner Prize)을 수상했다.⁷⁸⁾ 이로써 동시대에서 가장 주목할 작가가 되었으며, 예술과 각종 문화 산업 및 매스미디어를 넘나들며 다양한 양식과 매체를 생산하는 동시대의 미술 경향을 이끌게 되었다.

74) 네이버, <http://www.damienhirst.com/home>,(2014. 4. 31)

75) 상계서.

76) 네이버,두산백과. <http://blog.naver.com/chanwoolee/10051>,(2014. 4. 23)

77) 상계서.

78) 김정아(2013), 회화에서 「마음(心, mind)」 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9.

2)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데미안 허스트 작품의 주제는 죽음이다. 죽음을 보여주는 방식이 너무도 직접적이고 충격적이어서 그는 ‘악마의 자식’으로 ‘엽기의 예술가’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⁷⁹⁾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은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욕망과 사랑, 영원함과 순간, 아름다움과 추함, 과학과 종교, 일상과 허무 등 삶과 죽음 이면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특히 인간이 가진 삶과 죽음에 대한 아이러니한 감정, 불가역성에 대해 도전하는 인간의 욕망, 그리고 일상의 무상함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⁸⁰⁾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에 사용한 혐오스러운 소재들은 인간의 일상과 관계된 사소한 것들이자 내면의 나약함, 추함, 변태성을 대변하는 도구로서 접근 가능한 대중예술, 즉 신성함과 세속적임, 청결과 불결함, 고급과 저급 등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한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⁸¹⁾ ‘죽음’은 다양한 층위의 관람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였다. 특히 허스트는 ‘죽음’의 의미를 고정된 내러티브(Narrative)를 통해 전달하지 않고 상반된 요소들의 병치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관람자 스스로 그 의미를 찾도록 하였다.⁸²⁾

허스트의 작품 중에 가치를 배제한 채 동물의 사체를 즉물적으로 제시한 <그림 17>의 ‘천년’은 삶과 죽음의 양면성을 드러내는 개념적이고 충격적인 작품으로⁸³⁾ 그로테스크 특성의 웃음과 공포성을 나타내고 있다. 파리라는 생명체의 일생을 통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유한성을 확인하고 죽음에 관한 불안과 공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79)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 (2014. 4. 20)

80) 김정아(2013), 전계서, p.60.

81) 홍정현(2011), 전계서, p.18.

82) 상계서.

83) 상계서.

있다.⁸⁴⁾

즉 허스트의 작업은 주제와 형식 모두를 통해서 동시대 관람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인데, 이러한 점은 yBa 작가들 중에서도 허스트가 시대를 대표하는 존재로 부상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⁸⁵⁾ 허스트의 예술세계를 관통하는 ‘죽음’이라는 주제가 그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음습하면서도 신비로운 무게감, 그리고 ‘이중성’이라는 표현 없이 허스트를 규정하기란 불가능하다.⁸⁶⁾

또한 허스트는 무한히 지속되는 삶에 대한 희망과 좌절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양극단에 놓인 가치들을 병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순간과 영원, 아름다움과 추함, 종교와 과학, 사랑과 욕망, 원본과 복제 등 그의 작품에 담긴 대조적인 요소들은 이처럼 ‘삶과 죽음’ 사이의 딜레마(dilemma)를 드러내는 동시에 관람자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⁸⁷⁾

1991년 열린 첫 전시회에서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를 가득 채운 유리 진열장에 죽은 상어를 넣어 전시한 <그림 16>의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 작품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주목받기 시작하였다.⁸⁸⁾ ‘삶과 죽음’을 주제로 한 데미안허스트의 작품인 ‘살아 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은 삶과 죽음, 현존과 공존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포름알데히드 용액으로 가득 찬 수조안의 상어는 마치 살아 있는 모습처럼 생생함을 더해준다. 육면체의 프레임(frame)은 회화에서의 그리드(grid)처럼 ‘예술’의 경계를 지키는 순수형식의 틀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깨는

84) 이현지(2012), 전계서, p.27.

85) 상계서.

86) 임근혜(2009), 「창조의 제국 (영국 현대미술의 센세이션)」, 지안출판사, p.85.

87) 홍정현(2011), 전계서, p.4.

88) 김윤영(2012), 전계서, p.6.

또 하나의 형식이기도 하다. 수조안의 상어로 하여금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생겨난다.⁸⁹⁾ <그림 22>의 속임수는 삶에 담긴, 또는 그것을 연장하려는 종교와 과학에 담긴 부조리를 의미하며, <그림 21>의 ‘찬가’ 1999-2000 에서는 대중 사회의 이상화된 소비 상품으로서의 의학을 마치 숭배의 대상이나 현대인이 종교처럼 의지하는 의학과 과학을 비판하고 있다. <그림 18>의 ‘엄마와 분리된 아이 (Mother and Child Divided)’는 엄마 젖소와 아기 젖소를 각각 수직방향으로 잘라 펼쳐 놓은 후, 분리된 신체 조각들을 개별적으로 포름알데히드 용액으로 가득 찬 수조 안에 넣은 것으로⁹⁰⁾ 허스트는 동물을 반으로 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미와 새끼를 분리시켜 모성애에 부여된 전통적, 종교적 가치를 전복하였다. ‘양떼로부터 떨어져서’의 <그림 19>의 작품에서도 삶과 죽음, 현실과 내세 등의 반대 항들은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관람자의 해독을 독려하고 있다. <그림 22>는 수직으로 교차된 유리판의 교차 면에 해골의 두상만을 끼워 놓고 눈알을 공중에 떠 있게 하였다. ‘속임수’라는 제목은 조각난 소의 작품 제목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에 내재한 거짓’과 마찬가지로 삶에 담긴, 또는 그것을 연장하려는 종교와 과학에 담긴 부조리를 의미하며, 심미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⁹¹⁾ 허스트의 또 다른 작품 중 <그림 23>의 ‘천사의 해부학’은 천사의 조각이 정교하게 장식된 무덤들에서 애처롭게 기대어 서서 무덤을 지키는 천사를 표현한 것이다. 이 조각은 허스트가 해오던 충격적이고 강렬한 작품들과는 달리 온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⁹²⁾ <그림 24>에서는 실제 사람의 두개골에서 모형을 조형한 후 은으로 장식해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욕구와 인간의 내면에 공존하는 미(美)와 추

89) 이현지(2012), 전계서, pp.28.

90) 홍정현(2011), 전계서, pp.31.

91) 네이버, <http://www.damienhirst.com/home>, (2014. 4. 31)

92) 김정아(2013), 전계서, pp.74-75.

(醜) 삶을 둘러싼 부조리를 담아내고 있으며 ‘Fear of Death’ (그림 25)는 해골 위에 파리를 붙인 작품으로 작업을 하면서 가장 낙관적이고 가장 부정적인 것에 대해 생각하며 나타내고 있다.⁹³⁾ ‘신의 사랑을 위하여(For the Love of God, 2007)’ <그림 27>은 실제 해골위에 보석을 사용한 작품이다.

허스트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축하하는 작업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받아들여 극복하고자 제작하였다. <그림 26>에서도 생후 2주미만 영아의 실제 유골에 다이아몬드를 박아 만든 작품으로 윤리적 책임을 묻는 비판의 소리가 높은 작품이다.⁹⁴⁾ <그림 28>의 ‘알약’은 발륨(Valium)이라는 우울증을 치료해주는 알약으로 죽음의 불가항력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며, <그림 29>에서는 대형 캔버스(canvas)에 목탄 점성 UV 잉크(Ultraviolet Cure Ink)에 실크 스크린(silk screen)기법으로 개별 인간의 두개골의 상세한 이미지를 갖추고 있는 작품으로 죽음이라는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자화상 (그림 30)’은 데미안 허스트의 화제작 중 하나로 21세기 최첨단 자화상으로 불리고 있다. <그림 31>은 정육점에서 사용된 갈고리에 쇠고기를 매달아 포름 알데히드용액으로 채워진 유리 진열장에 넣고, 그 아래로는 그의 작품에서 ‘바니타스(Vanitas)’로 사용되어 왔던 해골, 모래시계 등을, 그 주위에는 열대어들을 배치에 놓은 작품으로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의 회화 같이 만드는 것을 구상하였다.⁹⁵⁾ 1995년에는 ‘엄마와 분리된 아이’의 <그림 18>은 런던 테이트 갤러리에서 터너 상을 수상한 이후 국제 미술계에서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 영국의 미술전문지 ‘아트리뷰’가 선정한 세계 미술계 파워맨 100에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 1위에 오른

93) 상계서, p.67.

94) 김성희(2008), 「삶과 죽음, 그리고 예술에 대한 도전자」, 월간미술 1월호, p.62.

95) 상계서.

바 있다.⁹⁶⁾

허스트는 ‘죽음’의 의미를 고정된 내러티브(narrative)를 통해 전달하지 않고 상반된 요소를 병치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관람자 스스로 그 의미를 찾도록 하여 동시대 관람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시대를 대표하는 존재로 부상 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⁹⁷⁾ 허스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력한 생명체의 삶의 모습을 다양한 소재와 조형적 장치들을 통해 표현해 왔으며 생명체의 생의 주기를 대상화하고, 박제된 동물들을 대면하게 함으로써 관람자가 죽음의 숙명을 느끼게 하는 한편 생애의 의지도 발견하게 하였다.⁹⁸⁾

허스트의 작업을 거나 크반(Gunnar B, Kvarn)은 죽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과 동시에 죽음과 삶을 극과 극의 상반된 이미지를 함께 담아 삶과 죽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생물을 등장시키는 작업으로 생명의 유한성을 생생하게 연출해 냄으로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경쾌하게 ‘가벼운 유머’ 인양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⁹⁹⁾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은 현대 미술의 다양성과 혼성, 융합 등의 특성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어떠한 장르(genre)나 사조, 양식 등에 얽매이지 않고 독창성을 구현한다는 이유로 본 연구의 선행 작가로 선정하게 되었다.

96)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 (2014. 4. 20)

97) 윤난지(2011), 「데미안 허스트, 죽음에의 관음중」, 월간미술 12월호, p.27.

98) 네이버, <http://Kimweonhee.com>, (2014, 3, 3).

99) 이현지(2012), 전계서, p.29.



<그림 16>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
 (출처-대중성과 다양성의 예술 현대미술, 마르코
 메네구초, 노운희 외 1인 역, 2010, p.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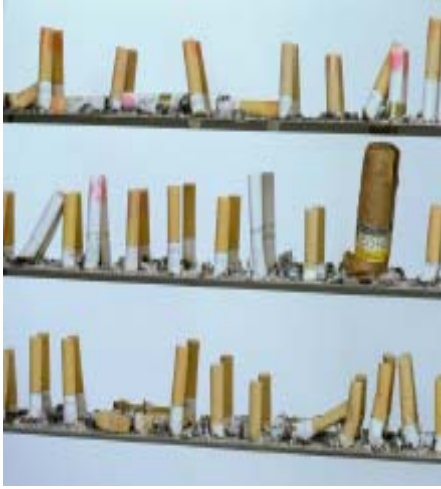
<그림 17> 천년
 (출처-<http://yatzer.co/Tate> "Modem"
 Damien "Hirst"
 (검색일: 2014. 4. 14)



<그림 18> 엄마와 분리된 아이
 (출처-<http://yatzer.co/Tate> "Modem" Damien "
 Hirst
 (검색일: 2014. 4. 14)



<그림 19> 양떼로부터 떨어져서
 (출처-출근길에, 데미안히스트와고든, 2002, p.
 219)



<그림 20> 심연
 (출처-<http://yatzer.co/Tate> “Modem” Damien “Hirst”
 (검색일: 2014. 4. 14)



<그림 21> 찬가 1999-2000
 (출처-현대 미술의 풍경, 윤난지, 2005, p. 233)



<그림 22> 속입수
 (출처-<http://yatzer.co/Tate> “Modem” Damien “Hirst”
 (검색일: 2014. 4. 14)



<그림 23> 천사의 해부학
 (출처-<http://eclectix.com>)
 (검색일: :2014. 5. 25)



<그림 24> 인간의 운명
 (출처-<http://yatzer.co/Tate>
 "Modem" Damien "Hirst")
 (검색일: 2014. 4. 14)



<그림 25> Fear of Death
 (출처- <http://yatzer.co>
 /Tate "Modem" Damien "Hirst")
 (검색일: 2014. 4. 14)



<그림 26> 제발
 (출처-<http://yatzer.co/Tate> "Modem" Damien "Hirst")
 (검색일: 2014. 4. 14)



<그림 27> 신의 사랑을 위하여
 (출처-미술법, 김형진 저, 2011, p.35)



<그림 28> 알약
 (출처-<http://yatzer.co/Tate> "Modem"
 Damien "Hirst")
 (검색일: 2014. 4. 14)



<그림 29> 독
 (출처-Poisons and Remedies, Damien
 Hirst, 2011, p. 29)



<그림 30> 자화상
 (출처-<http://yatzer.co/Tate> "Modem" Damien "Hirst")
 (검색일: 2014. 4. 14)



<그림 31> 망각의 추구
 (출처-<http://yatzer.co/Tate> "Modem" Damien "Hirst")
 (검색일: 2014. 4. 14)

4. 아트메이크업의 이론적 고찰

1) 아트메이크업의 개념

아트메이크업(art make-up)이란 얼굴 혹은 신체를 대상으로 각양각색의 그림, 형태, 장식 등을 이용하여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주제를 표현하고, 창의적으로 이미지화하여 메이크업을 예술의 경지로 만드는 분야' 라고 한다.¹⁰⁰⁾ 아트메이크업에서 창의적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발상' 이 중요하다.¹⁰¹⁾ 발상은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형태나 소재에 있어서 새로움을 표현하므로,¹⁰²⁾ 메이크업 아티스트(artist)는 신체를 도화지 바탕으로 상상력과 다양한 표현 기법을 통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창조해야 한다.¹⁰³⁾ 이러한 아트메이크업은 주제에 따라 여러 기법으로 재료 등에 구속 받지 않고 인간의 육체에 새로움을 추구하여 인체를 디자인한다는 뜻으로 그 방법이 다양하다. 눈, 코, 입의 형태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점에서 내적 정신과 외적 감각의 새로운 예술 분야로 창조되고 있다.¹⁰⁴⁾ 그러므로 아트메이크업은 어떠한 주제가 주어져도 다양한 문양이나 사실적, 추상적 이미지를 묘사하고 표현하는 예술적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¹⁰⁵⁾

100) 한국미용학회(2003), 「미용학 사전」, 서울: 신광출판사, p.573.

101) 신원선(2012), 아트 메이크업 교육을 위한 MIS 디자인 발상 프로세스, 서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8.

102) 신원선, 오인영(2010),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발상을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제11권 1호, pp.145-162.

103) 이상훈(2007), 「메이크업예술 기법」, 들샘, p.141.

104) Fredric Jameson, 윤호병 역(1994), 「반미학: 포스트모던 문화론」, 현대미학사, p.75.

105) 이경은(2007), 전계서, p.11.

2) 아트메이크업의 유형

아트메이크업은 입체적인 인체라는 곡선 위에 추상적이며 다양한 시각적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오늘날 복잡하고 독특한 개성표현에 의해 미에 대한 본질적 개념을 깨고 시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아트메이크업은 크게 환타지 메이크업, 페이스 페인팅(Face painting), 바디 페인팅(Body painting)등 예술성이 표현된 아트메이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¹⁰⁶⁾

(1) 환타지 메이크업

환타지 메이크업(Fantasy Make-up)은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화려하고 과장되게 이미지를 표현하여 작품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기법이며,¹⁰⁷⁾ 사전에 의하면 기이한 세상이나 시대, 초자연적 존재나 형상이 위주가 되는 상상력을 기초로 한 허구를 지칭한다.¹⁰⁸⁾ 이 기법은 상상력의 기능이나 실체가 없는 환영이나 정신적 과정으로 그리스어 ‘Phantasein’에서 파생된 라틴어 ‘Phantasticus’에서 나온 것으로 ‘가시화 하다, 착각을 주다, 명백하게 하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¹⁰⁹⁾

환타지 메이크업은 실제와 상상의 세계를 조합하는 추상적인 존재, 동물들의 형상화, 현실과 초현실을 연결하는 도구로서 발전되어 왔다. 상상한 아이디어를 일정한 틀이나 재제 없이 <그림 35>에서 보여지듯 일상적인 메이크업에서 벗어난 예술적 영감과 실험정신을 반영하여 환상

106) 이규리(2012), 입체주의적 플라쥬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파피에 콜레 기법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2.

107) 한명숙(1999), 「마귀아쥬 예술」, 청구문화사, p.185.

108) 정승희(2010), 2000년대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디자인의 이국적 이미지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30.

109) 최기숙(2003), 「환상(문학의 기본개념 3)」, 연세대학교 출판부, pp.7-8.

적인 느낌을 형상화 시키는 구체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¹¹⁰⁾

<그림 34>는 환타지 메이크업으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gradation)을 에어브러시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레이스 스텐실을 사용한 작품이다.

이처럼 화려하고 과장된 이미지를 표현하는 환타지 메이크업에서 많이 쓰이는 소재로는 물, 불, 나비, 꽃 등의 자연과 주제로는 기쁨, 슬픔 등이 있다.

(2) 페이스 페인팅

페이스 페인팅(Face painting)은 메이크업 표현재료를 이용하여 포인트를 주듯이 작은 부위에 그리거나 얼굴 전체에 그리기도 하는 형태로서 그 사용처와 역할은 다양하다.¹¹¹⁾ 페이스 페인팅은 분장 예술의 한 장르로 인식하여 다양한 주제와 연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화폭에 그리는 평면적인 그림과는 달리 인체의 곡선과 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페이스 페인팅의 표현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문양, 추상적 화법, 사실적 묘사, 빛의 음영 처리로 부각시키는 조각상, 사진 기법을 이용한 연출 등 다양하다.¹¹²⁾ <그림 32>에서처럼 곡선이나 직선의 추상적인 문양을 이용하기도하여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림 33>과 같이 특별하고, 인상적으로 보이고 싶거나 집중되기를 원할 때 하는 특별한 메이크업이라고 할 수 있다.¹¹³⁾ 그러므로 환타지, 동물, 캐릭터 등 얼굴에 그리는 것은 모두 페이스 페인팅이라 할 수 있다.

110) 김영희 외 7인(2001), 「토틸 메이크업」, 정문각, p.131.

111) 맹월(2011), Lace를 이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조형성,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

112) 한명숙(1999), 전계서, p.234.

113) 김영숙(2003),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9.

(3) 바디 페인팅

바디 페인팅(Body painting)은 인간의 내적 이미지의 세계를 얼굴에서 신체로까지 넓힌 미적표현을 말한다. 바디 페인팅을 미술적 사조로 살펴보면 개념 미술로 분류할 수 있고, 사람의 몸을 재료로 하는 미술형태인 <그림 36>의 퍼포먼스 형태라 할 수 있다.¹¹⁴⁾ 바디 페인팅은 평면이 아닌 인체에 그림을 그림으로서 생명력이 느껴지는 것이며, 신체 예술로서의 바디 페인팅은 정지된 상태로 일정시간 동안에 자유로이 감상할 수 있는 작품과는 달리 일회적이고 보존되지 않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바디 페인팅은 정지되어 있는 예술품보다 사실적 작품 <그림 37>이나 살아있는 듯한 실험적 작품들까지 다양한 신체예술 형태로 이어져 현대에는 독특한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¹¹⁵⁾ 바디 페인팅기법 <그림 38>에서 보여주듯 동물, 사물 등 소재에 제약 없는 변화가 가능하며, 무대와 조명, 컨셉(concept)에 맞는 소품, 음악, 특수효과, 모델의 퍼포먼스 등의 모든 것이 완전한 조화를 이룸으로써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다.¹¹⁶⁾

114) 강민정(2006), 패션누드에 나타난 바디페인팅의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7.

115) 공영희(2007), 구스타프 클림트의 회화 작품을 응용한 바디 아트(Body Art)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2.

116) 상계서.



<그림 32> 페이스페인팅 I
 (출처- <http://dkbnews.donga.com>)
 (검색일: 2014. 4. 14)



<그림 33> 페이스페인팅 II
 (출처- www.youtube.com)
 (검색일: 2014. 4. 14)



<그림 34> 환타지메이크업 I
 (출처- <https://www.google.co.kr>)
 (검색일: 2014. 4.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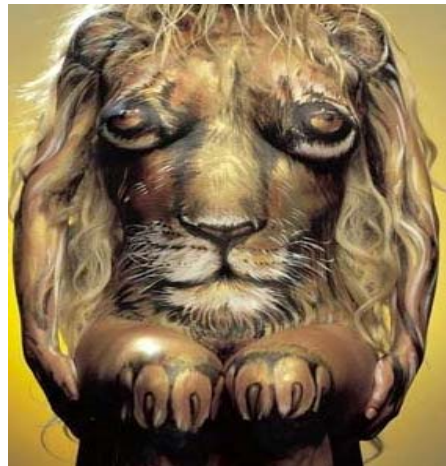
<그림 35> 환타지메이크업 II
 (출처- <https://www.google.co.kr>)
 (검색일: 2014. 4. 14)



<그림 36> 바디페인팅 I
(출처-[\(http://\(style.com\)\)](http://(style.com)))
(검색일: 2014. 4. 14)



<그림 37> 바디페인팅 II
(출처- <http://vogue.co.kr>)
(검색일: 2014. 4. 14)



<그림 38> 바디페인팅 III
(출처-<http://image.search.naver.com>)
(검색일: 2014. 4. 14)

3)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이미지 구성 요소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은 표현에 있어 상황이나 연출해야하는 주제와 패션에 따라 여러 기법이나 재료 등에 구속 받지 않고 얼굴에 새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디자인하는 것이다.¹¹⁷⁾ 아트메이크업은 다양하여 얼굴의 눈, 코, 입, 형태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내면의 세계와 외적 감각의 표현으로 전통적인 미의 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예술 분야로 창조되고 있다.¹¹⁸⁾ 메이크업 디자인 표현에 있어 디자인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 중 형태, 색채, 질감으로 분류하였다.

(1) 형태

형태의 범주에서 다루는 것들은 점, 선, 면, 입체가 있고 디자인에서의 형태는 대상물이 추구하는 사용 목적과 일치할 때 비로소 독립된 형태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용성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¹¹⁹⁾

점은 크기나 형태 이외에 점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형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되며, 선은 점 다음으로 가장 단순한 디자인의 요소로 폭, 굵기가 다양하고 형태도 여러 가지 이다. 면은 면을 구성하는 직선, 곡선 각각의 성격을 나타내면서 형태의 방향성에 의해 종합적으로 나타난다. 조형적인 작품 표현에 있어서 점, 선, 면은 유기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²⁰⁾

포괄적인 의미로 형태는 인간이 디자인하는 창의성에 입각하여 부여된 가치가 기능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키며, 우리의 감

117) 리차드 아피냐네시, 이소영 역(1996), 「포스트모더니즘 :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가」, 이두, p.45.

118) 상계서.

119) 우서스윙, 유한태 역(1999), 「평면 디자인 원론」, 미진사, p.11.

120) 이규리(2012), 전계서, p.36.

각과 이성을 통해 인지 될 수 있는 총체적인 전달매체(Communication Media)¹²¹⁾라고 할 수 있다. 메이크업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형태를 이루는 2차원적 셰이프(shape)와 3차원적인 형태(form)가 혼합된 형태를 갖고¹²²⁾ 비대칭과 불균형의 비정상적이며 추상적인 형태, 얼굴의 윤곽이나 형태를 생략하거나 은폐하여 특정 부위만 과장되게 표현하는 형태, 실제 대상을 비현실적으로 변형하여 동물의 모티브를 묘사하는 형태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¹²³⁾ <그림 28>에서도 얼굴의 윤곽이나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추상적인 형태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2) 색채

색은 시지각(視知覺)의 일종으로 일상생활에서 보거나 다루는 것으로 물체와 더불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감, 기울기, 표면질감, 대조성, 그 밖의 심리적인 느낌이나 평가가 따른다.¹²⁴⁾ 이러한 색은 곧 시각적인 이미지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되고 있으며, 색채를 인지할 때 광선이 눈을 통해 뇌에 지각하는 과정을 거치는 단계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감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 색이 갖는 이미지이다. 또한 색은 지각을 통하여 지각되는 생리적 현상임과 동시에 감각을 통하여 하나의 감정을 일으키는 심리적 현상이므로 색에서 받는 인상은 색에 따라 다르며 그에 따른 감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¹²⁵⁾ 색은 색의 배색에 따라 사람을 생기 있고 환하게 보이게도 하고 어둡고 그늘진 이미지를 주기도 하며, 색은 인간에게 분위기와 감각의 표현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데 예술가들은 색의 감정을 분리하여 재해석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제의

121) 민경우(1995),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pp.172-174.

122) 정승희(2010), 전계서, p.39.

123) 이규리(2012), 전계서, p.36.

124) 김덕록(1997), 「화장과 화장품」, 답게, p.260.

125) 강명주(2008), 눈화장에 따른 형태 변화와 이미지 연구 : 20대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4.

향상된 인지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다.¹²⁶⁾ <그림 33>은 초록색을 사용하여 괴기스럽게 표현해 색상이 주는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색을 사용할 때는 색이 주는 이미지와 색의 배치나 면적 비례를 고려하여 목적에 맞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한다. 색을 사용할 때 색상, 명도, 채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조화롭게 배색해야 하고 재질과 형태를 감안하여 배색함과 색이 주는 이미지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메이크업 디자인이 주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¹²⁷⁾

(3) 질감

질감은 형태, 색채와 더불어 디자인의 필수 요소로서, 물체의 조성 성질을 말하며, 이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 형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물체의 표면 질(surface quality)이라고 할 수 있다.¹²⁸⁾ 또한 질감은 물체 표현에서 느껴지는 물체 고유의 촉감을 말한다.

아트 메이크업의 질감 표현은 물체가 가지고 있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표면적인 성격이나 특징을 말하며 다양한 재료의 사용과 도구의 특성을 이용한 표면 효과로 만들어 진다고 할 수 있다.¹²⁹⁾ 그러므로 질감은 형태, 색채와 함께 시각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으로 작품 디자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메이크업디자인에 있어서의 질감은 피부결을 고르게 보이도록 하는 것으로, 피부 전체에 바른 파운데이션과 파우더의 양에 의해 달라지며 광택의 유무와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¹³⁰⁾ 질감은 매트(mat), 글로시(glossy), 펄(pearl), 글리터(glitter)로 나누어지며, 사용위치에 따라 부분 사용, 전체 사용으로 촉각적,

126) 김문숙(2000), 「패션과 색채」, 경춘사, p.20.

127) 오세희(2005), 「STYLE MAKE UP」, 성안당, pp.102-104.

128) 민경우(1995), 전계서, p.189.

129) 이영희(2007), 전계서, p.8.

130) 정승희(2010), 전계서, p.46.

시각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¹³¹⁾

3) 아트메이크업 표현 기법

아트메이크업은 다양한 방법과 재료가 지니는 특성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페인팅(회화적) 기법, 에어브러시(air brush)기법, 오브제(objet)기법, 컴퓨터그래픽(computer graphic)기법으로 분류하였다.¹³²⁾

(1) 페인팅(회화적) 기법

페인팅 기법은 아트 메이크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 사실적 표현에서부터 작가의 창의적인 예술표현 기법까지 가능하며, 페인팅의 재료는 고체, 액체 및 크림 타입(cream type)의 재료가 있다.¹³³⁾ 라이닝 컬러(lining color, 유성물감)이나, 아쿠아 컬러(aqua color, 수성물감)의 특징을 살려 페인팅 브러시로 새도우와 어우러지게 그라데이션 할 수 있다.¹³⁴⁾ 선이나 면의 음영을 정확하게 나타내어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페인팅 브러시와 스펀지(sponge)로 전체적인 베이스(base) 색상을 칠해준다. 면을 칠하는 용도의 납작한 브러시와 끝이 둥근 브러시, 세밀한 곳을 칠하기 위한 끝이 뾰족한 브러시 등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페인팅 브러시를 사용하며 최종적으로 가는 선이나 작은 면을 수정하여 보충해준다.¹³⁵⁾

131) 이우열(2005), 주얼리 디자인의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45.

132) 산업자원부(1998), 전통문화와 산업디자인 접목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진흥원, p.50.

133) 이상훈(2007), 「메이크업예술 기법」, 들샘, p.43.

134) 이상봉(2004), 「메이크업 디자인 MASTERING BEAUTY」, 청구문화사, p.119.

135) 이상훈(2007), 전계서, p.145.

(2) 에어브러시 기법

에어브러시 기법은 에어 콤프레셔(air compressor, 공기 압축기)를 이용하여 물감을 분사하여 색을 뿌리는 기법이다. 에어브러시 기법은 자연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으며, 그라데이션이 용이하고 넓은 부위를 빠른 시간에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¹³⁶⁾ 또한 원하는 모양의 판을 몸에 대고 에어브러시로 그 주위를 뿌려주면, 스텐실(stencil) 효과도 얻을 수 있다.¹³⁷⁾

(3) 오브제 기법

오브제는 라틴어에서 기원된 말로서 ‘앞으로 던져진 것’ 이라는 뜻이며 객체 또는 대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기법이나 재료의 제한을 없애고 일상의 사물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조형개념을 형성하는 것을 뜻 한다.¹³⁸⁾ 오브제는 다양한 소재의 확장과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상상력,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며 메이크업의 조형성을 표현하기 위해 종이, 금속, 레이스, 깃털, 천, 펄, 반짝이, 꽃, 스팅글(spangle), 비즈(beads) 등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 한다.¹³⁹⁾ 이러한 오브제 기법이 아트 메이크업에 응용 되어져 오브제의 조형적 영역과 메이크업 디자인 개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¹⁴⁰⁾

136) 이윤선(2011), 조르주 쇠라의 점묘법을 응용한 메이크업 작품 제작,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4.

137) 이현주(2003), 피카소의 회화를 응용한 바디아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8.

138) 천지연, 노선옥, 이귀영 외 2명(2003), 「Faces in Make Up」, 청구문화사, p.236.

139) 이윤선(2011), 전게서, p.24.

140) 유정주(2003), 아트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브제의 소재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6.

(4) 컴퓨터그래픽 기법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예술은 컴퓨터상 정교한 작업 및 3D 그래픽 (Three D imensional graphics) 작업을 프린트(print)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디지털(digital)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되는 회화, 조각, 순수사진, 시각예술, 설치미술을 이루는 예술형태이다.¹⁴¹⁾ 컴퓨터 기술이 핵심이 되며 디지털 페인팅은 2,3차원의 컴퓨터그래픽 이미지를 창출하여 정지된 화상의 미적 개념을 다룰 수 있다.¹⁴²⁾ 컴퓨터그래픽 기법의 작품 완성도와 형상의 대상을 알 수 없는 추상적인 모티브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그래픽 기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141) 박천신(2008), 「디지털아트 디지털페인팅」, 한언, p.16.

142) 상계서.

IV. 작품 제작

1. 제작 의도

본 연구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발하고도 엉뚱한 예술적 표현을 만들어내는 미술계의 이단아로 불리며 현대미술의 흐름과 판도까지 바꾸어 놓은 천재 아티스트,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그로테스크 특성으로 재해석해 아트메이크업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허스트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삶, 죽음, 사랑, 믿음, 배신 등 인간의 연약함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담아내고 있다. 본 연구는 허스트의 작품을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느낌과 작가의 의도와 본질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죽음과 삶 앞에 대면하는 인간의 심리 등의 이미지를 극대화 시켜 엽기적인 발상으로 재해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작품은 ‘보여지 는 것’ 보다 ‘보는 관점’ 에 따라 다른 시각에서의 비평과 인식, 쾌 . 불쾌의 감정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로테스크 특성의 ‘부조화성’ , ‘극단과 과 장성’ , ‘비정상성’ , ‘웃음과 공포성’ 을 데미안 허스트의 죽음과 해골을 모티브로 한 8개의 작품을 선정하여 그로테스크 특성을 담아 총 8점의 기괴하면서도 독특한 아트 메이크업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작품 디자인 계획은 <표 1> 과 같다.

작품 I 은 데미안 허스트의 알약을 그로테스크 특성인 부조화성을 사회의 부조리함에 분노와 조롱하는 듯한 악마적인 표정을 페인팅 기법과 포토샵 기법으로 제작하고자한다.

작품 II에서는 데미안 허스트의 죽음의 공포의 극단과 과장성, 그리고 부조화적인 형상의 혼합으로 양면의 해골을 페인팅 기법으로 표현하고자 하며,

작품 Ⅲ은 데미안 허스트의 독이란 작품에서 비정상성을 적용하여 삶의 갈림길에서의 충돌이 빚어내는 혐오스러움을 형태의 변형으로 일그러진 해골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기법으로는 페인팅과 오브제 기법을 사용한다.

작품 Ⅳ에서는 데미안 허스트의 ‘인간의 운명’의 유희성과 악마 성을 동시에 담아내어 삶을 갈구하는 공포스러움으로 재해석하여 페인팅 기법으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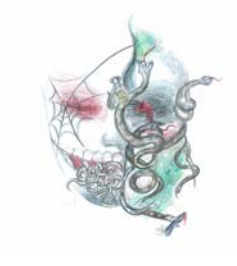
작품 Ⅴ는 데미안 허스트의 ‘신의 사랑을 위하여’ 부조화성으로 죽음 앞에서의 공포의 부조화적인 형상의 혼합으로 양면의 해골을 죽음에서 삶으로 갈망하는 순간으로 천국과 지옥을 주제로 나타내고자 한다.

작품 Ⅵ에서는 데미안 허스트의 ‘제발’ 극단과 과장성으로 죽음 앞의 억울한 내면을 환생이라는 주제로 재해석하여 페인팅 기법과 포토샵 기법을 적용하고자 하며,

작품 Ⅶ은 데미안 허스트의 ‘자화상’ 비정상성으로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보며 현실을 돌아보는 고뇌의 시간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한 심리의 표현으로 페인팅 기법과 오브제 기법, 지네로 나타내고자한다.

작품 Ⅷ에서는 데미안 허스트의 ‘망각의 추구’를 웃음과 공포성의 특징을 과도하게 왜곡하여 작품의 공포 성을 극대화시켜 재해석해 페인팅 기법과 오브제 기법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표 1> 작품 디자인 계획서

작품명	작품 I	작품 II	작품 III	작품 IV	작품 V	작품 VI	작품 VII	작품 VIII
데미안 허스트 작품	 알약	 죽음의 공포	 독	 인간의 운명	 신의 사랑을 위하여	 제발	 자화상	 망각의 추구
그로테스크 특성	부조화성	극단과 과장성	비정상성	웃음과 공포성	부조화성	극단과 과장성	비정상성	웃음과 공포성
주제	우울증	공포	일그러짐	두려움	천국과 지옥	환생	두 얼굴	죽음
디자인 일러스트								
표현방법	페인팅 기법, 에어브러시 기법, 포토샵 기법	페인팅 기법	페인팅 기법, 에어브러시 기법, 오브제 기법	페인팅 기법	페인팅 기법	페인팅 기법, 포토샵 기법	페인팅 기법, 오브제 기법	페인팅 기법, 에어브러시 기법, 오브제 기법
재료	수성물감, 인조 피	수성물감	수성물감, 오브제, 더마왁스, 점토, 스프리트 검	수성물감	수성물감	수성물감	수성물감, 오브제, 점토, 스프리트 검	수성물감, 오브제, 점토, 스프리트 검, 마스크, 인조이끼, 인조 피
사용색상	검정, 빨강, 흰색, 갈색, 베이지, 노랑	검정, 빨강, 흰색, 갈색	검정, 빨강, 흰색	검정, 빨강, 흰색	검정, 빨강, 흰색, 갈색	검정, 빨강, 흰색, 주황, 노랑, 초록, 파랑	검정, 빨강, 흰색, 갈색	검정, 빨강, 흰색, 회색, 녹색, 갈색

2. 작품 제작

1) 작품 I - “우울증”

특성 : 부조화성

표현유형 : 페이스 페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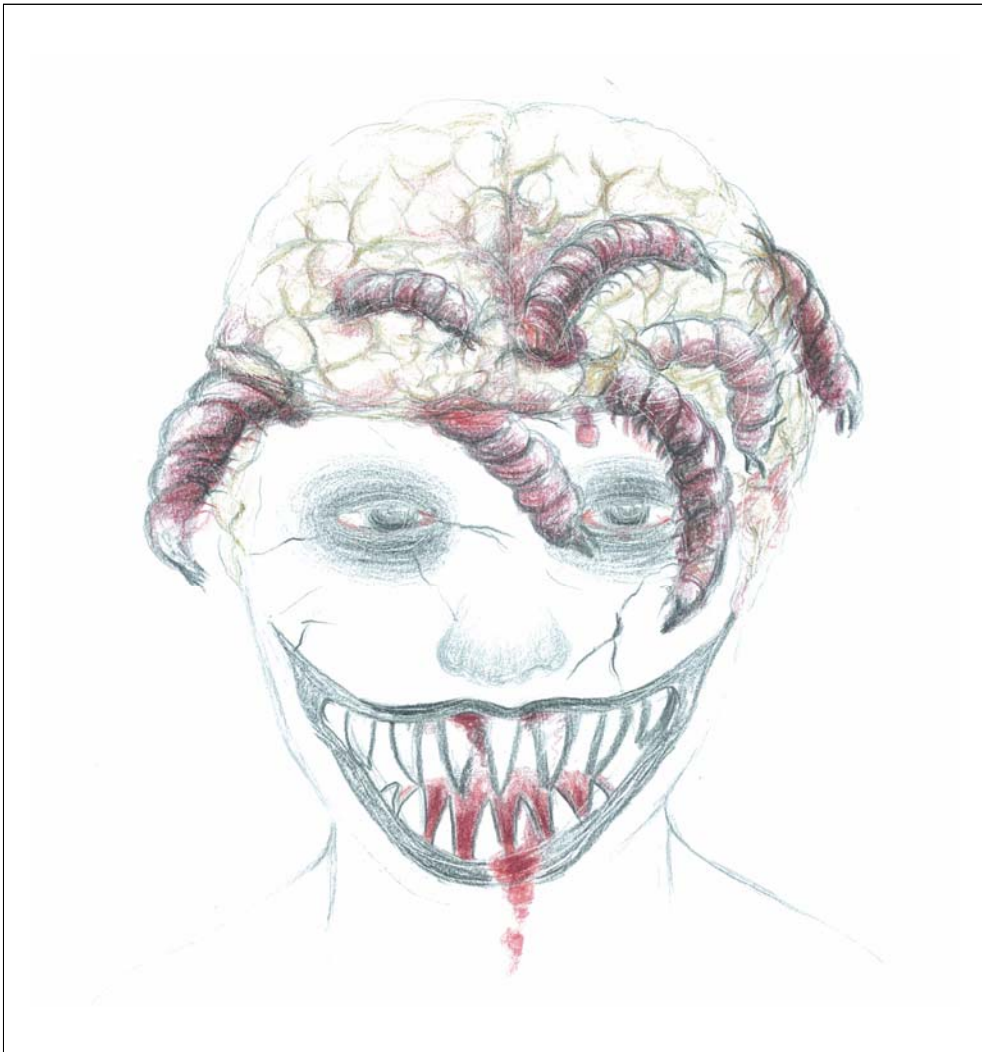
작품 I (그림 39)은 그로테스크 특성 중 가장 부조화성의 상호 모순되는 것의 조합으로 우울증 치료제인 알약과 죽음을 뜻하는 해골의 괴기스러움과 신비하면서도 의미 있는 비웃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무표정한 경직된 얼굴을 하고 사회의 부조리함에 분노와 조롱이 섞인 악마적인 비웃음과 현대인에게 만연되어있는 우울증을 뇌에서 기어나오는 벌레로 꿈틀거리는 공포스러움을 담아 그로테스크의 부조화라는 특성으로 나타내었다. 작품 I 은 핸드 페인팅기법과 인위적인 뇌의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 두 번의 핸드 페인팅의 작업으로 두 가지 이미지를 포토샵 기법을 적용하여 아트 메이크업의 시각적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I 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흰색 물감을 이용해 에어브러시로 해골의 흰 피부를 표현한다.
- ② 검정 수성물감으로 해골의 눈, 코, 비웃는 입의 모양을 그려준다.
- ③ 비웃는 입모양에 맞추어 날카로운 치아와 해골의 갈라짐을 나타내준다.
- ④ 마네킹 얼굴에 뇌와 기어나오는 벌레를 그려준다.
- ⑤ 뇌에서 뚫고 기어나오는 벌레 주변에 인조 피를 발라준다.
- ⑥ 인형에 페인팅해 놓은 이미지를 포토샵 기법으로 합성하여 완성한다.

작품 I 의 디자인 이미지는 <표 2>와 같다.

<표 2> 작품 I의 디자인 이미지



주제	우울증
특성	부조화성
재료	수성물감, 인조 피
표현방법	페인팅 기법, 에어브러시 기법, 포토샵 기법
사용색상	' 검정, 빨강, 흰색, 갈색, 베이지, 노랑



<그림 39> 작품 I - 부조화성

2) 작품 II - “공포”

특성 : 극단과 과장성

표현유형 : 페이스 페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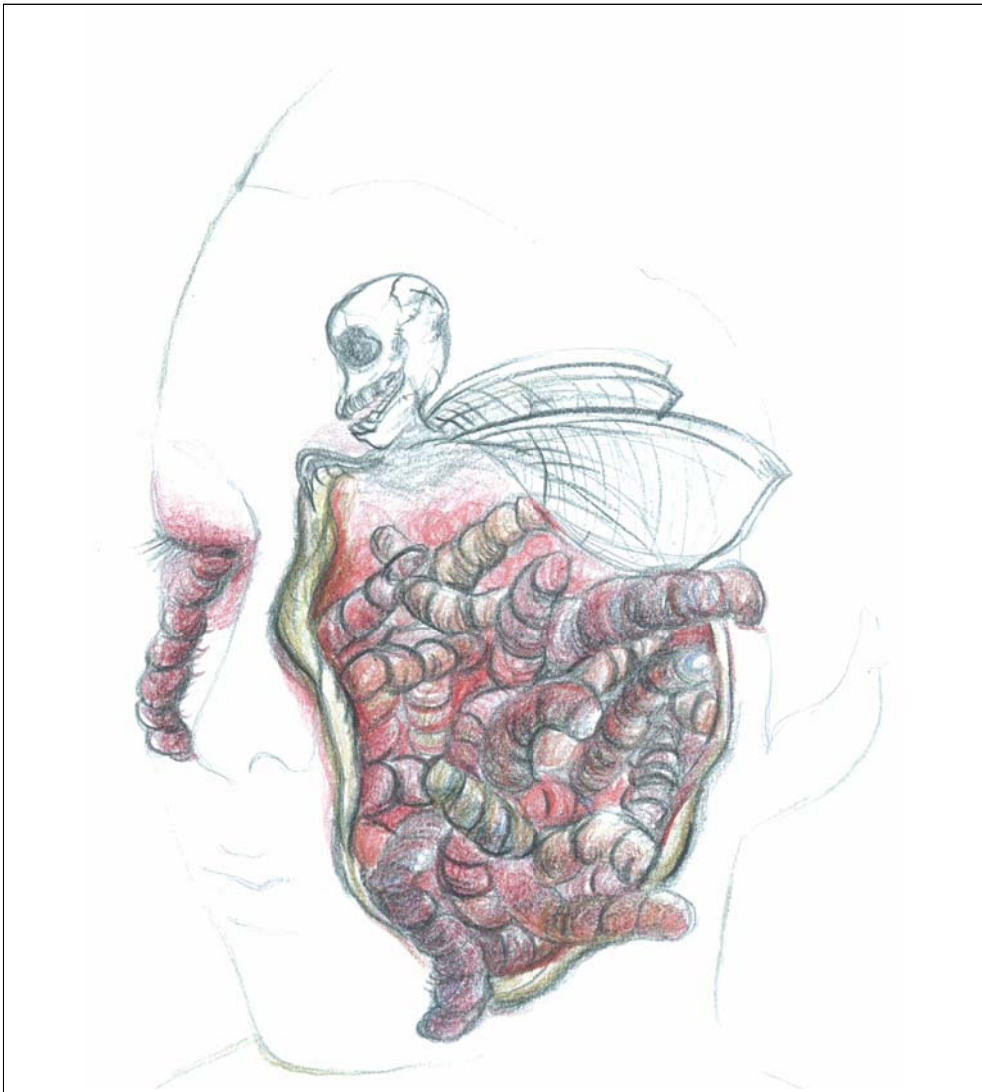
작품 II는 그로테스크 특성의 현실과 비현실의 뒤엉킴의 극단과 과장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해골위에 파리를 붙여 낙관적이고 부정적인 내면의 생각을 양면성으로 제작한 작품을 공포라는 주제로 재해석하여 혐오스러운 애벌레를 소재로 선택하여 이질적인 요소와의 결합으로 불균형과 기이함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림 40)피부의 벗겨짐을 섬뜩하게 표현하였으며 파리의 부화되기 전을 현실과 비현실에 맞서는 애벌레들의 뒤엉킴은 페인팅 기법을 사용하여 입체적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II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모델의 피부 톤보다 한톤 어둡게 파운데이션을 덧발라준다.
- ② 흰 펜슬을 이용해 피부의 벗겨짐과 애벌레들의 형태를 그려준다.
- ③ 애벌레들의 뒤엉킴을 빨강, 검정, 갈색, 흰색 수성칼라를 이용해 그라데이션하여 입체적으로 나타내준다.
- ④ 벗겨진 피부의 음영을 검정과 흰색을 사용해 부각시켜준다.
- ⑤ 반대쪽 눈에도 죽음을 상징하는 붉은 색으로 채색해 준다. 채색한 뒤, 꿈틀거리는 애벌레를 그려준다.
- ⑥ 마지막으로 부화되어 날기 직전의 파리를 그려주어 완성한다.

작품 II의 디자인 이미지는 <표 3>과 같다.

<표 3> 작품 II의 디자인 이미지



주제	공포
특성	극단과 과장성
재료	수성 물감
표현방법	페인팅 기법
사용색상	검정, 빨강, 흰색, 갈색



<그림 40> 작품 II - 극단과 과장성

3) 작품 III - “일그러짐”

특성 : 비정상성

표현유형 : 페이스 페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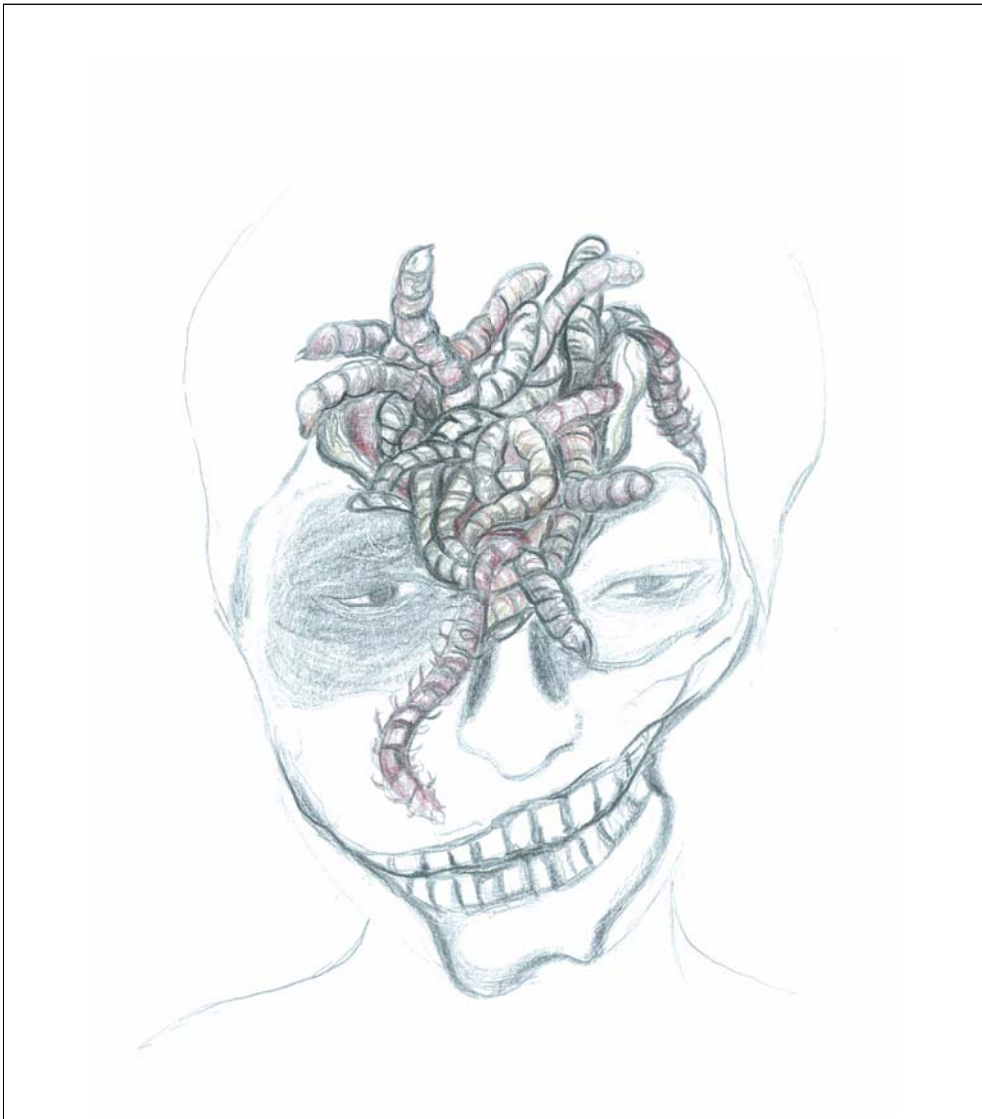
작품 III은 그로테스크의 특성의 비정상성으로 혐오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을 <그림 41>과 같이 표현하였다. 정상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낯선 이미지로 변화되어 공포로 바뀌게 된다. 그러한 공포에서 삶을 갈구하는 표현을 일그러진 해골을 모티브로 페인팅 하여 생명이 없는 절망이라는 시간에서 해골을 뚫고 기어 나오는 지네, 애벌레, 기생충 등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오브제를 병치해 혐오스러움을 부각시켰으며, 삶과 죽음 앞에서의 불안한 내면을 그로테스크의 비정상성으로 삶과 죽음이 라는 갈림길에서의 충돌이 빚어내는 혐오스러움을 표현하였다.

작품 III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흰색의 펜슬로 일그러진 해골의 윤곽을 그려준다.
- ② 흰색의 물감을 에어브러시로 표현해준다.
- ③ 해골의 눈과 입의 모양을 검정 수성물감으로 채색한다.
- ④ 더마 왁스로 벗겨진 피부의 주변을 만들어 입체적으로 부각 시켜준다.
- ⑤ 점토를 이용해 지네, 애벌레, 기생충들의 형태를 만들어 에어브러시 기법으로 채색한다.
- ⑥ 미리 만들어 놓은 곤충 오브제를 스프리트 검을 이용해 접착시켜 완성한다.

작품 III의 디자인 이미지는 <표 4>와 같다.

<표 4> 작품 Ⅲ의 디자인 이미지



주제	일그러짐
특성	비정상성
재료	수성 물감, 오브제, 더마 왁스, 점토, 스프리트 검
표현방법	페인팅 기법, 에어브러시 기법, 오브제 기법
사용색상	검정, 빨강, 흰색



<그림 41> 작품 III - 비정상성

4) 작품 IV - “두려움”

특성 : 웃음과 공포성

표현유형 : 페이스 페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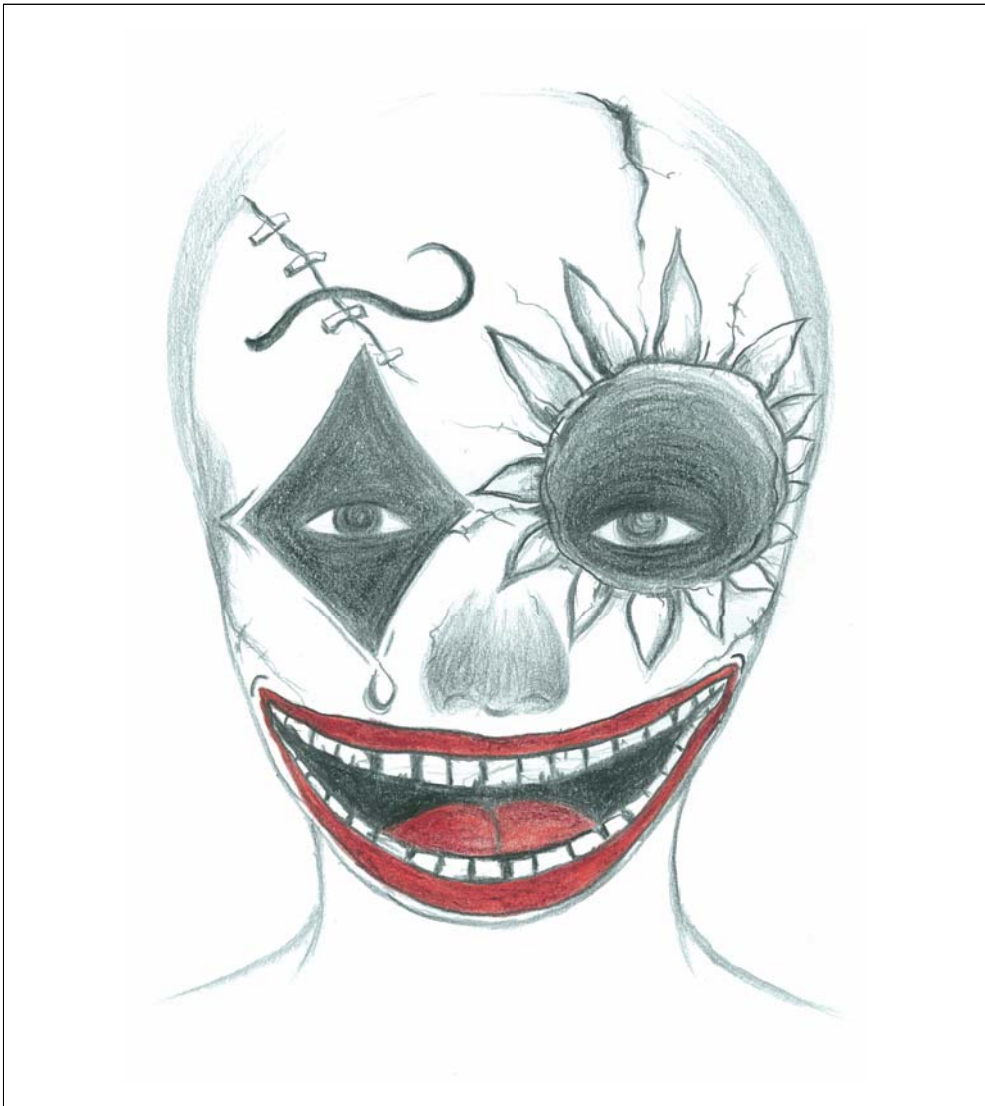
작품 IV(그림 42)는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양면성과 그로테스크의 특성 웃음과 공포 성을 불안, 공포의 시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죽음이라는 모티브로 유희성과 악마 성을 동시에 표현한 작품으로 우스꽝스러운 즐거움의 대상인 삐에로(Pierrot)를 소재로 정하였다. 인간의 나약함, 괴로움을 삐에로의 얼굴에 감추고 비웃고 있는 이중성을 페인팅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IV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흰색의 수성물감으로 얼굴 전체에 발라준 뒤 흰색 파우더를 덧바른다.
- ② 검정 펜슬로 삐에로의 눈, 입, 해골의 갈라짐을 스케치해 놓는다.
- ③ 눈의 마름모형과 둥근 해 모양의 형태를 그린 후 채색한다.
- ④ 빨강의 수성물감으로 벌어진 입술과 그사이로 보이는 혀를 그려준 다음 입술과 혀를 채워 넣는다.
- ⑤ 검정의 수성물감을 사용해 눈과 눈썹, 치아와 삐에로의 윤곽을 그려 부각시켜준다.

작품 IV의 디자인 이미지는 <표 5>와 같다.

<표 5> 작품 IV 의 디자인 이미지



주제	두려움
특성	웃음과 공포성
재료	수성 물감
표현방법	페인팅 기법
사용색상	검정, 빨강, 흰색



<그림 42> 작품 IV - 웃음과 공포성

5) 작품 V - “천국과 지옥”

특성 : 부조화성

표현유형 : 페이스 페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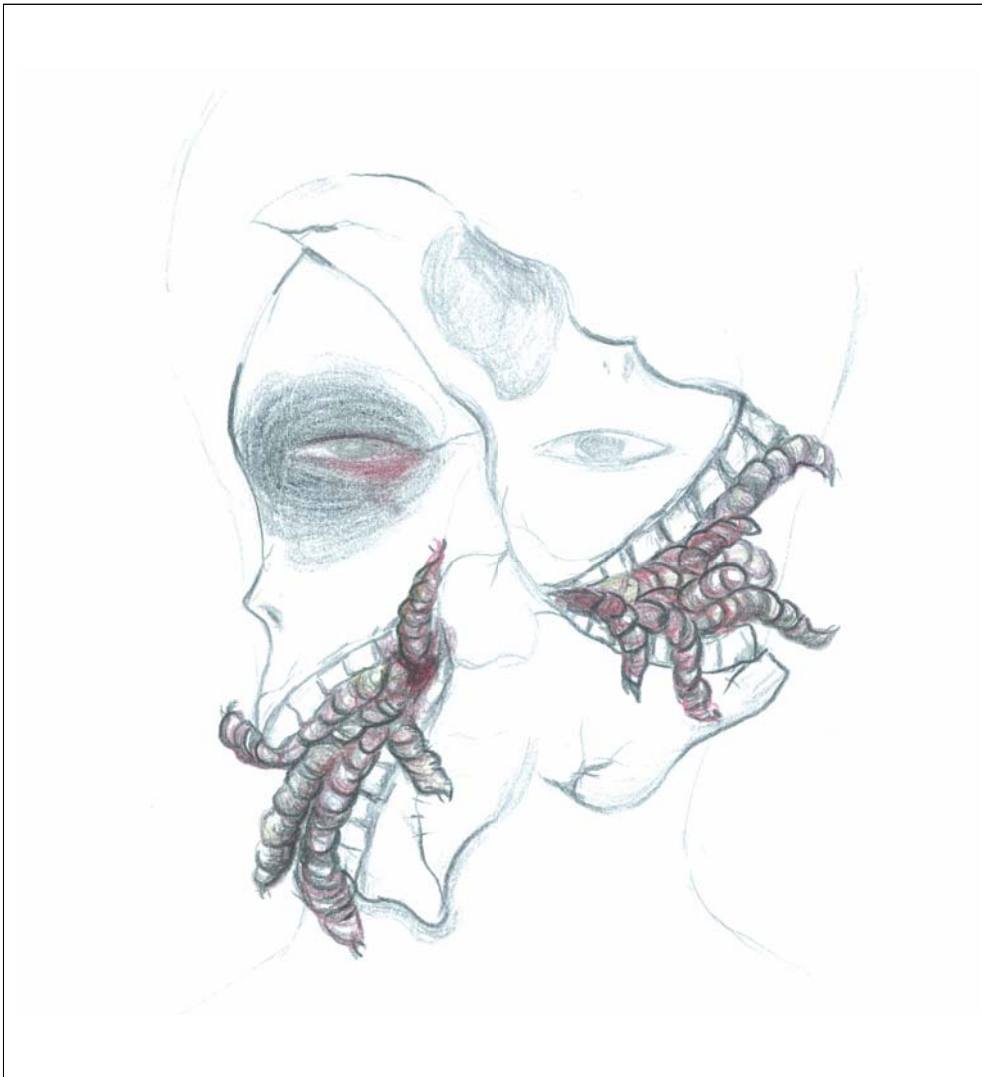
작품 V(그림 43)는 죽음 앞에서의 공포의 부조화스러운 형상의 혼합으로 각기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양면의 해골을 형태와 변형의 융합으로 재해석 하였다. 죽음에서 삶으로 갈망하는 공포스러운 순간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로테스크의 부조화성으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이중적인 표현으로 벌레를 소재로 사용하여 양가적인 것의 대립과 충돌로 부조화성을 부각시켰다. 수성물감을 사용하여 입안에서 기어나오는 벌레들을 입체적으로 페인팅 하였다.

작품 V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흰색의 펜슬로 두 개의 해골의 윤곽을 잡아 놓는다.
- ② 흰색 수성물감을 사용해 해골을 채색한다.
- ③ 검정 물감을 이용하여 해골의 눈, 치아의 형태를 그려준다.
- ④ 눈 주위와 해골간의 경계를 검정 색도우로 그라데이션한다.
- ⑤ 두 개의 해골의 입에서 기어 나오는 곤충의 형태를 그려준 뒤 검정, 빨강, 흰색, 갈색을 사용해 곤충의 꿈틀거림을 음영을 넣어 부각 시킨다.
- ⑥ 해골의 형태를 검정색과 흰색의 물감과 색도우로 입체감을 나타내어 준다.
- ⑦ 마지막으로 눈 주위에 붉은 색으로 공포감을 표현한다.

작품 V의 디자인 이미지는 <표 6>과 같다.

<표 6> 작품 V의 디자인 이미지



주제	천국과 지옥
특성	부조화성
재료	수성 물감, 검정 새도우
표현방법	페인팅 기법
사용색상	검정, 빨강, 흰색, 갈색



<그림 43> 작품 V - 부조화성

6) 작품 VI - “환생”

특성 : 극단과 과장성

표현유형 : 페이스 페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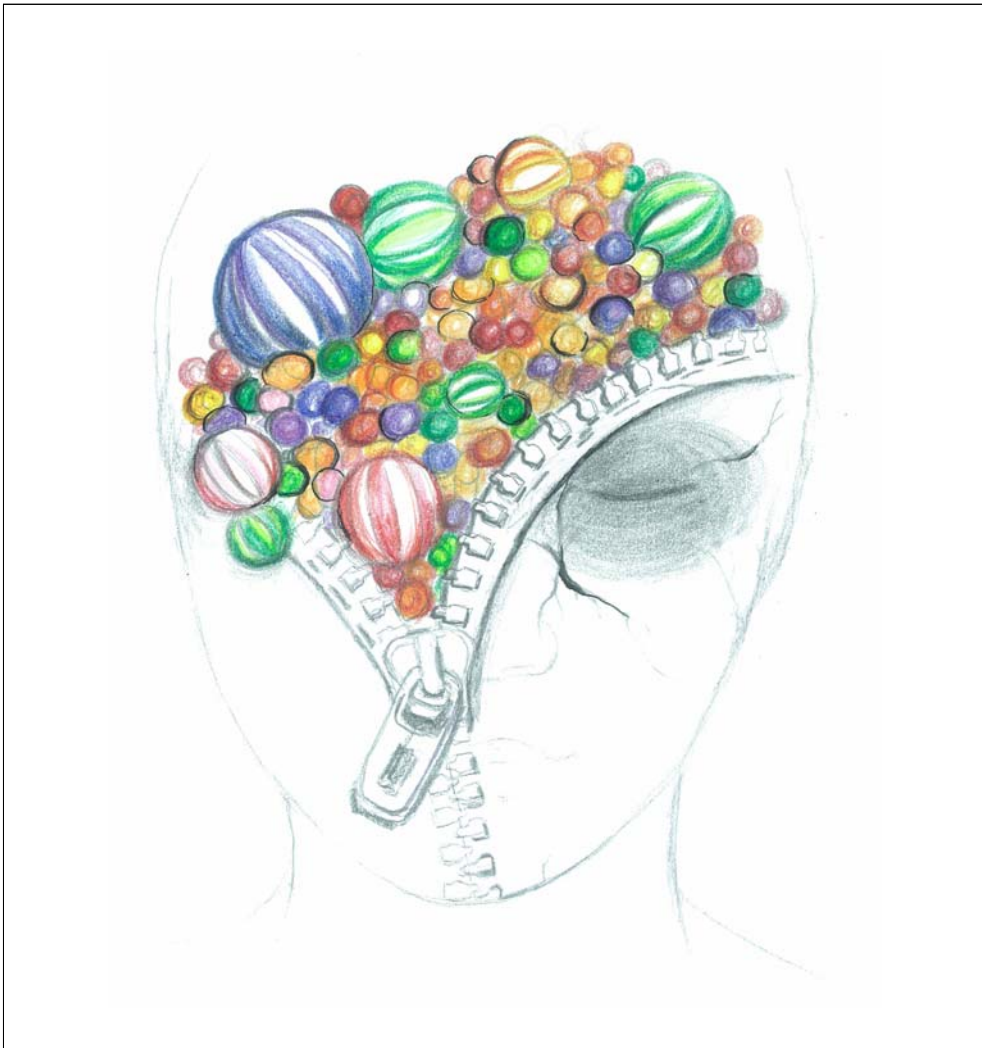
작품 VI는 극단과 과장성으로 사실적이지 않게 왜곡하여 <그림 44>와 같이 공상적이고 환상적인 과장성을 표현하였다. 환생이라는 주제의 해골을 모티브로, 태어나 얼마 안되어 죽음을 맞이한 영아의 슬픈 내면을 나타내었다. 과장된 공상의 세계를 현실과 비현실의 뒤얽힘으로 이승에서 못 이룬 꿈과 희망을 사탕으로 표현하였으며, 환생이라는 꿈은 열린 지퍼로 재해석하여 제작하였다. 작품 VI에서는 페인팅 기법과 포토샵 기법을 사용하였다.

작품 VI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흰색의 물감으로 얼굴전체를 채색해준다.
- ② 흰색의 수성 물감을 이용해 열린 지퍼의 모양을 잡아놓는다.
- ③ 지퍼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형형색색의 사탕을 그려준다.
- ④ 사탕을 다양한 원색의 색상을 사용해 입체적으로 채색해준다.
- ⑤ 검정색과 흰색의 물감을 사용해 지퍼의 사실감을 그라데이션 하여 부각시켜준다.
- ⑥ 안에 있는 사탕의 음영을 만들어 준 뒤 포토샵 기법을 적용해 입체적인 사탕을 합성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준다.

작품 VI의 디자인 이미지는 <표 7>과 같다.

<표 7> 작품 VI의 디자인 이미지



주제	환생
특성	극단과 과장성
재료	수성 물감
표현방법	페인팅 기법, 포토샵 기법
사용색상	검정, 흰색,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그림 44> 작품 VI - 극단과 과장성

7) 작품 VII - “두 얼굴”

특성 : 비정상성

표현유형 : 페이스 페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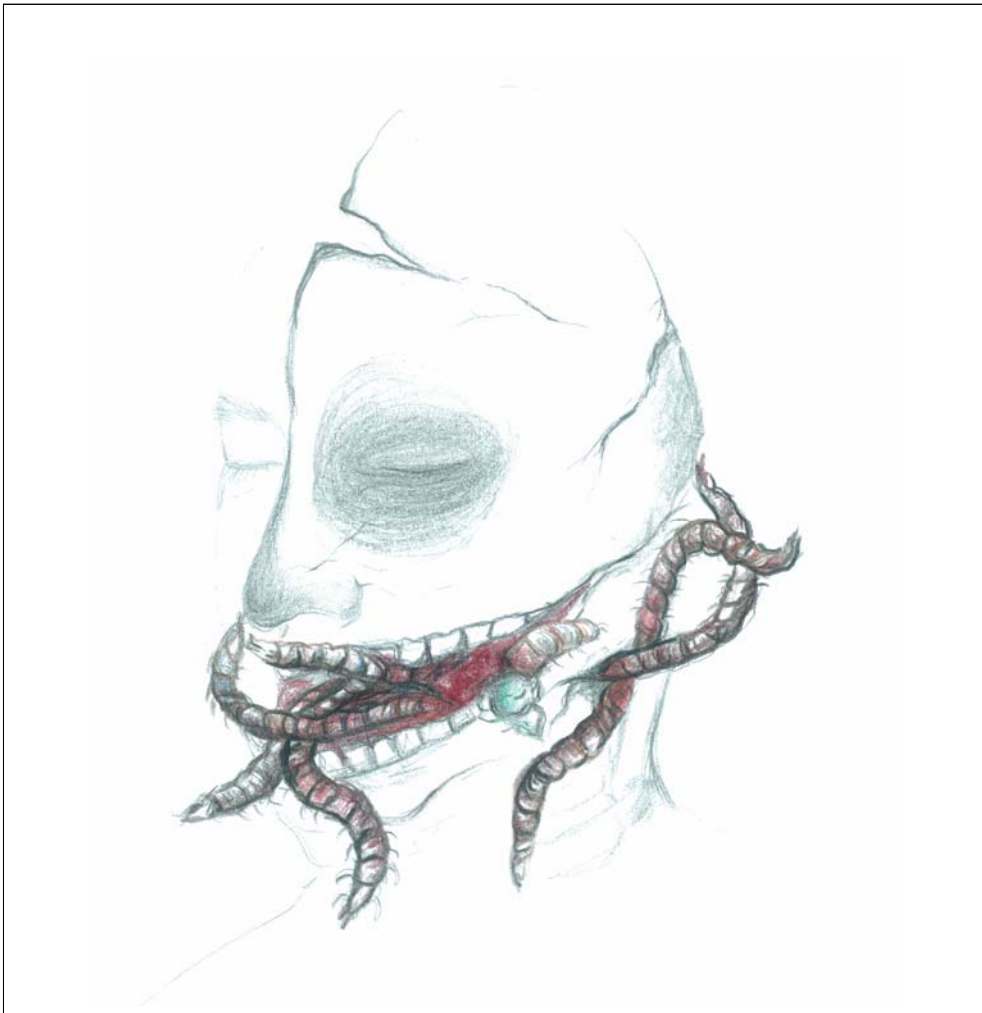
작품 VII(그림 45)은 그로테스크의 비정상성으로 인간이 받는 고통과 두려움을 자신의 자화상과 현실을 돌이켜보는 고뇌의 시간 속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한 심리를 나타내었다. 비정상성의 표현을 재해석하기 위해 갈라진 해골 사이로 기어 나오는 혐오스러운 지네로 제작하였다. 그로테스크의 양면적인 것들의 대립과 충돌은 혐오스러운 지네로 오브제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해골의 이미지는 페인팅 기법으로 나타내었다.

작품 VII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흰색의 수성 물감을 사용해 해골의 이미지의 형태를 잡아준다.
- ② 흰색의 물감으로 해골을 채색해준다.
- ③ 검정물감으로 해골의 눈과 갈라짐을 그려준다.
- ④ 해골의 이마와 벌린 입의 갈라짐에 선을 그려준 뒤 해골 사이로 기어나오는 지네와 곤충의 움직임은 사실감 있게 표현해준다.
- ⑤ 점토를 이용해 입체적인 지네를 오브제로 제작하여 채색한다.
- ⑥ ④에서 그려놓은 지네 위에 오브제(지네)를 스프리트 검을 사용하여 부착하는 것으로 완성하였다.

작품 VII의 디자인 이미지는 <표 8>과 같다.

<표 8> 작품 Ⅶ의 디자인 이미지



주제	두 얼굴
특성	비정상상
재료	수성 물감, 오브제, 점토, 스프리트 검
표현방법	페인팅 기법, 오브제 기법
사용색상	검정, 빨강, 갈색, 녹색



<그림 45> 작품 VII - 비정상성

8) 작품 VIII -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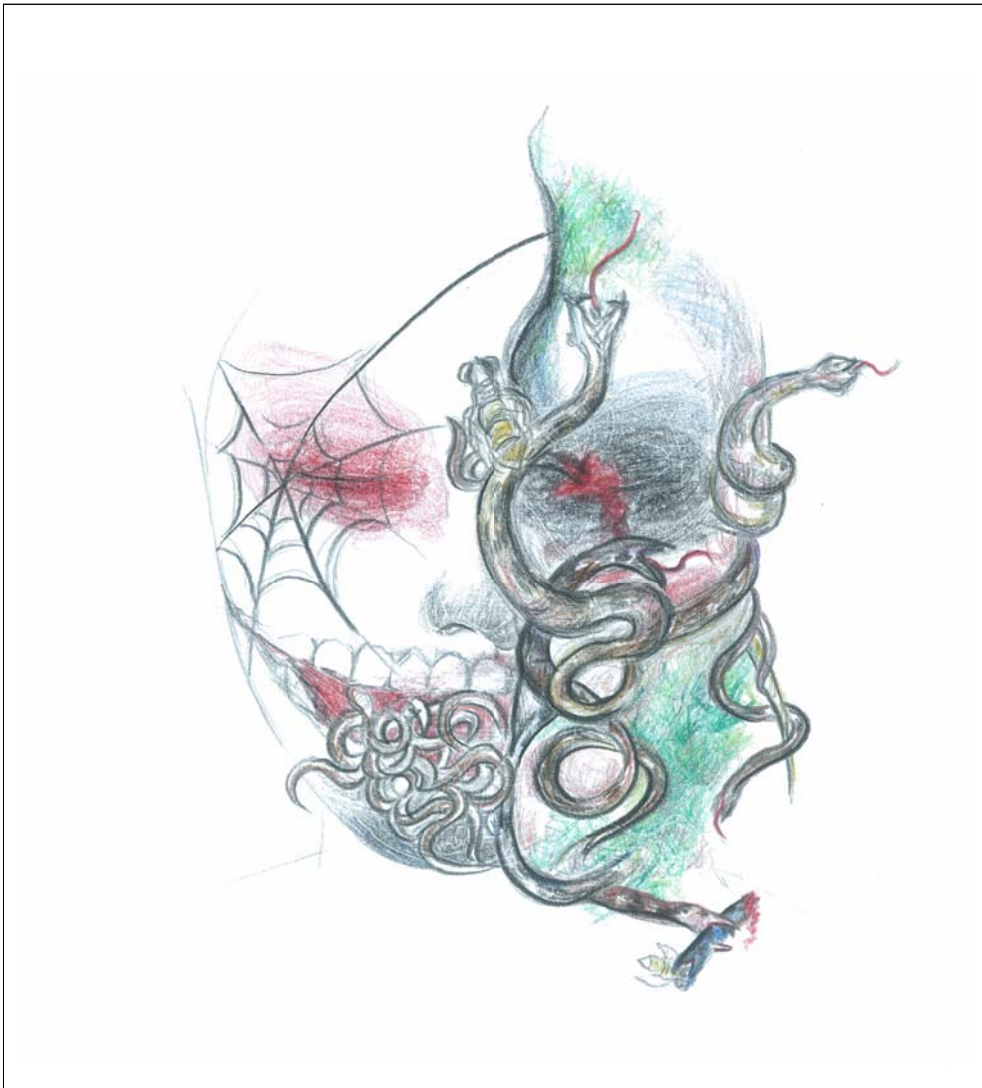
특성 : 웃음과 공포성

표현유형 : 페이스 페인팅

작품 VIII는 웃음과 공포성의 상식적이지 않고 과도하게 왜곡하여 작품의 공포성을 (그림 46)과 같이 극대화시켜 제작하였다. 죽음이라는 주제로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함을 표현하였으며, 기형성과 공포성을 그로테스크하게 재해석하였다. 얼굴의 한쪽은 해골로 페인팅한 후 사리사육의 상징으로 뱀이 뒤엉킨 가면을 제작하여 오브제로 사용하였다. 작품 VIII는 끔찍스러움과 공포스러움을 동시에 나타내어 웃음과 공포성의 효과를 부각시켜 페인팅 기법과 오브제 기법, 에어브러시 기법으로 완성하였다. 작품 VIII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얼굴 전체에 흰색 물감을 에어브러시로 뿌려준다. 빨강색 물감으로 공포스러운 눈과 찢겨진 입을 그려준다.
- ② 검정 수성물감을 사용해 거미줄을 표현해준다.
- ③ 입체적인 해골을 표현하기 위해 가면을 제작한다. 먼저 가면의 반을 자른다. 자른 가면에 검정 물감으로 눈과 가면 주변을 에어브러시로 뿌려준다.
- ④ 점토를 이용해 다양한 크기의 뱀을 만들어 에어브러시로 채색해준 다음 완성된 뱀과 인조 이끼, 벌레를 마스크에 접촉시킨다.
- ⑤ 제작된 마스크 오브제를 반쪽 얼굴에 설치해주어 조형성을 강조해준다. 입 주변에는 실뱀과 벌레를 스프리트 검으로 접촉시킨다. 마지막으로 인조피를 발라주어 공포성과 끔찍스러움을 부각시켜 완성한다. 작품 VIII의 디자인 이미지는 <표 9>와 같다.

<표 9> 작품 VIII의 디자인 이미지



주제	죽음
특성	웃음과 공포성
재료	수성 물감, 오브제, 점토, 마스크, 스프리트 검, 인조이끼, 인조 피
표현방법	페인팅 기법, 에어브러시 기법, 오브제 기법
사용색상	검정, 흰색, 빨강, 회색, 녹색, 갈색



<그림 46> 작품 Ⅷ - 웃음과 공포성

VI. 결 론

현대 예술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미적 가치가 다원화됨에 따라 정상적이고 평범한 이미지보다 과장되고 괴이하며 충격적인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듯 현대 아트메이크업에서도 보편적인 미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창의적인 표현이 중요하다고 보는 바이다. 본 연구는 그로테스크 특성의 양면적인 어떤 것으로, 대립하는 것들을 현대 미술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과 아트메이크업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실험정신을 담아 충격적이면서 독특한 이미지로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국내·외의 전문서적과 선행논문,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로테스크의 완성도를 위해 입체적인 오브제 기법과 포토샵 기법을 적용하였다. 작가선정은 현대미술작가이며 그로테스크한 작품으로 알려진 데미안 허스트로 정하였으며, 그로테스크의 개념과 필립툼슨이 분류한 4가지 특성 ‘부조화성’, ‘극단과 과장성’, 비정상성, ‘웃음과 공포성’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골, ‘죽음’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독창적이며 그로테스크한 8개의 아트메이크업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I은 알약을 부조화성의 특성, 모순된 것의 조합으로 재해석하여 ‘우울증’을 주제로 페인팅 기법과 포토샵 기법으로 제작하였으며, 작품 II에서는 죽음의 공포와 극단과 과장성의 죽음, 그리고 삶을 이질적인 요소로 ‘공포’라는 주제로 페인팅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III은 독이라는 작품과 비정상성에서의 특징, 충돌이 빚어내는 혐오스러움을 ‘일그러짐’이란 주제로 페인팅 기법과 오브제 기법의 혼합으로 입체적으로 제작

하였으며, 작품 IV는 웃음과 공포성의 특징인 유희성과 악마성을 동시에 표현하여 ‘두려움’이란 주제로 재해석하였다. 작품 V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주제로 죽음 앞에서 충돌과 대립의 양면성을 부조화성의 특성으로 부각시켜 두 개의 해골로 표현하였다. 작품 VI에서는 제발이라는 작품, 극단과 과장성의 특징인 현실, 공상의 세계를 ‘환생’이라는 주제로 흥미롭게 나타내었으며, 작품 VII은 자화상을 모티브로 그로테스크의 비정상적인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공포를 유발하는 주제 ‘두 얼굴’로 혐오스럽게 표현하였다. 작품 VIII에서는 망각의 추구의 작품과 웃음과 공포성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기괴함을 얼굴에 나타내어 그로테스크함을 극대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기괴함과 엽기적인 방법으로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뱀, 지네, 지렁이 등을 페인팅 기법과 오브제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아트 메이크업 하면 아름답고 화려한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현과 소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아트 메이크업을 연구해 봄으로써 정형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주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 작품 제작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그로테스크의 충격적인 자극효과와의 경계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는데 발상의 전환을 유도하는 원천이 될 것이며, 디자인의 영감이 전해지리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국내 · 국외 문헌

김덕록(1997). 「화장과 화장품」, 답게.

김문숙(2000). 「패션과 색채」, 경춘사.

김성희(2008). 「삶과 죽음, 그리고 예술에 대한 도전자」, 월간미술 1월호.

김영희 외 7인(2001). 「토틸 메이크업」, 정문각.

김형진(2011). 「미술법」, 메이문화산업연구원.

리차드 아피냐네시, 이소영 역(1996). 「포스트모더니즘: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가」, 이두.

마르코 메네구초, 노운희외 1인 역(2010). 「대중성과 다양성의 예술 현대미술」, 마로니에북스

민경우(1995).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박천신(2008). 「디지털아트 디지털페인팅」, 한언.

볼프강 카이저, 이지혜 역(2011).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아모르문디.

양희석(1980). 「예술철학사(上)」, 자유문고.

오세희(2005). 「STYLE MAKE UP」, 성안당.

우서스윙, 유한태 역(1999). 「평면 디자인 원론」, 미진사.

움베르토 에코, 오숙은 역(2008). 「추의 역사」, 열린책들.

윤난지(2011). 「데미안 허스트, 죽음에의 관음증」, 월간미술 12월호.

윤난지(2005). 「현대 미술의 풍경」, 한길아트.

이상훈(2007). 「메이크업예술 기법」, 들샘.

- 이상봉(2004). 「메이크업 디자인 MASTERING BEAUTY」, 청구문화사.
- 이유영(1982). 「한독 문학 비교 연구」, 서강출판부.
- 임근혜(2009). 「창조의 제국 (영국 현대미술의 센세이션)」, 지안출판사.
- 천지연, 노선옥, 이귀영 외 2명(2003). 「Faces in Make Up」, 청구문화사
- 최기숙(2003). 「환상(문학의 기본개념 3)」, 연세대학교 출판부.
- 필립 톰슨, 김영무 역(1986). 「The Grotesque」,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명숙(1999). 「마피아주 예술」, 청구 문화사.
- 한국미용학회(2003). 「미용학 사전」, 신광출판사.
- 할 포스터, 윤호병 역(1994). 「반미학: 포스트모던 문화론」, 현대미학사.
- 해럴드 오즈본, 한국미술연구소 역(2002). 「옥스퍼드 미술사전」, 시공사.
- 허창운(1997). 「프로이트의 문학예술이론」, 민음사.
- 데미안허스트와 고든굽기(2002). 출근길에, 우주출판.
- Damien Hirst(2011). Poisons and Remedies, Gagosian Gallery, New York.
- Damien Hirst, Gordon Burn(2002). On the Way to Work, Universe Publishing
- Kris Kuksi(2010). Kris Kuksi: Divination and Delusion, beinArt Publishing.

학위논문

- 강경희(2006). 장폴 고티에의 패션쇼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메이크업의 표현 특성,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명주(2008). 눈화장에 따른 형태 변화와 이미지 연구: 20대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민정(2006). 패션누드에 나타난 바디페인팅의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연경(1999). 보나벤투라(Bonaventura)의 『야경(Nachtwachen)』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영희(2007). 구스타프 클림트의 회화 작품을 응용한 바디 아트(Body Art)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하진(2011). 현대 패션에 표현된 골계미(滑稽美),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보영(2013). 그로테스크적 기형성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연구, 동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영(2008).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작품의 그로테스크적 특성, 한국복식학회지 제58권 제8호, pp.106-119.
- 김양은(2004). 선을 강조한 아트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2003).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진(2004). 화예조형에서의 Grottesque Image 표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영(2012). 데미안 허스트의 약 시리즈 연구: 1988-2005년 작품

- 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아(2013). 회화에서 「마음(心, mind)」 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한나(2012). 식물의 그로테스크 표현을 중심으로 한 장신구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1972). 일러스트레이션이 기법에 현대회화가 미친 영향,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미현(2003). 복식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희선(2004). 피카소 아비뇽처녀들에 나타난 페미니즘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맹월(2011). Lace를 이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조형성,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민(2013). 부정감정의 범주와 관람자의 예술적 가치 평가에 대한 고찰,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2013). 현대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경(2011). 현대 패션에 표현된 광기 이미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희정, 간호섭(2013). 현대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그로테스(Grotesque) 특성 연구: Damien Hirst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 37권 제3호 통권233호, pp.399-412.
- 변영희(2003). 현대 메이크업에 표현된 추(醜)이미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산업자원부(1998). 전통문화와 산업디자인 접목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

인진홍원.

서승미(2003).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이미지, 한국
의류산업학회지, 제5권 제2호 통권22호, pp.137-144.

신용준(2008). 그로테스크 아트퍼니처에 관한 연구: 기형적 형태의 아
트퍼니처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원선(2012). 아트 메이크업 교육을 위한 MIS 디자인 발상 프로세스,
서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원선, 오인영(2010).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발상을 위한 일러스트레
이션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제11권 1호, pp.145-162.

신지은(2001). 조형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적 표현과 신체성에 관한
연구 : 프란체스코 클레멘테(Francesco Clemente)와 신디 셔먼
(Cindy Sherman)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은혜(2010). 사회 속에서 나타난 ‘보호’의 표현방법연구 : 수족관
이미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정주(2003). 아트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브제의 소재에 관한 연구, 한
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성혜(2007). 그로테스크 표현을 통한 World of Warcraft와 리니지
II의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건모(1989).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한 표현에 대
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은(2007). 메이크업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에 관한 연구:
2001년~2005년 파리 컬렉션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이규리(2012). 입체주의적 꼴라주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파피에 콜레 기법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화(2011).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조형성, 복식학회지 제 61권 제5호 통권154호, pp.34-47.
- 이영희(2007). 그로테스크적으로 표현된 아트메이크업에 관한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우열(2005). 주얼리 디자인의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윤선(2011). 조르주 쇠라의 점묘법을 응용한 메이크업 작품 제작,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아(2002),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2003). 피카소의 회화를 응용한 바디아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지(2012). 동시대미술에서 나타나는 특성연구 : yBa 작가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림(1988). Thomas Mann의 초기단편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현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미숙, 양숙희(2000). 1990년대 후반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 메이크업 광고와 컬렉션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제8권 제3호, pp.436-449.
- 정승희(2010). 2000년대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디자인의 이국적 이미지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은영(2003). 비어즐리(Aubrey Beardsley) 작품을 통해 본 조형적 방법론으로서의 그로테스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함순용(2010). 고양이 판화연작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정현(2011).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작업에 나타난 '상실'의 미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인터넷 자료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 (검색일자: 2014. 4. 20)

-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chanwoolee/10051> (검색일자: 2014. 4. 23)

- 네이버블로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9604&cid=272&categoryId=272> (검색일자: 2014. 4. 23)-네이버 지식백과사전

http://www.britishmuseum.org/the_museum/museum_in_london/london_exhibition_archive/statuephilia/damien_hirst.aspx(검색일자: 2014. 2. 20)- 대영박물관, 유럽 ‘누보팝’ 한자리서 본다

Cyber 두산백과 (검색일자: 2014. 3. 1)

<http://www.Style.com>, <http://google.co.kr> (검색일자: 2014. 4. 14)

<http://Kimweonhee.com> (검색일자: 2014. 3. 3)

<http://vogue.co.kr> (검색일자: 2014. 4. 3)

<http://www.damienhirst.com/home> (검색일자: 2014. 4. 14)

<http://www.beksinski.pl/> (검색일자: 2014. 3. 22)

<http://eclectix.com> (검색일자: 2014. 5. 25)

<http://yatzler.co/Tate> “Modem” Damien “Hirst (검색일자: 2014. 4. 23)

ABSTRACT

Grotesque Makeup Production utilizing the artwork of Damien
Hirst

Choi, Reum-Soe

Department of Convergence design and arts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Modern art shows the proximity of the Grotesque than any other times. 'Grotesque' is a term we usually use to describe incredible, vague, and weird phenomenon. As creativity and individuality have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in the modern society, the uniqueness and exaggerated images are more preferred than the ordinary.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media discourages standardized makeup while encouraging Grotesqu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interpret artworks concerning death made by Damien Hirst, a modern artist, as art makeup by using various techniques and characteristics of Grotesque. This study is about 'the switch of ideas' since ideas have become essential in art makeup to express creative designs. I re-interpreted artworks with the motif of the 'skeleton' and 'death' based on a concept of Grotesque and four characters classified by Philip Thomson(Incongruity, Extreme and Exaggeration, Unusualness, Laugh and Fear) and used painting, objet

technique, and Photoshop. The selected artist is Damien Hirst, a modern artist, known as grotesque works.

The proces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ork I, I re-interpreted artwork 'Pill' in the theme of 'depression' using grotesque sense of skull, which means death. The Photoshop and painting were used and I, especially, took care of emphasizing its visual images to express its three-dimensional representation.

Work II, I re-interpreted artwork 'the Fear of the Death' by combining extreme and exaggeration, reality and unreality. This work represents the life and death expressed by the life of a fly and was produced by mixing heterogeneous elements.

Work III, I re-interpreted artwork 'the Poison' using 'contortion' and 'unusualness' of Grotesque. I expressed campiness and loathing at the same time which were made by a collision between life and death.

Work IV, 'The Sudba cheloveka' was expressed as pleasant and devilish by using 'laugh and fear'. This work was re-interpreted in the theme of 'fear' and represents amusement, turning aside from the existing image of scary skull.

Work V, I re-interpreted artwork 'the For the Love of God' in the theme of 'heaven and hell' using incongruity of Grotesque. I used painting technique to express skulls that are looking at different ways in regard of a death, collision, and conflict.

Work VI, I re-interpreted artwork 'the For Heaven's Sake' in the theme of 'reincarnation' by using extremeness, exaggeration, and fantasy of Grotesque. The Work VI was expressed by painting technique and the Photoshop.

Work VII, I re-interpreted artwork 'the Portrait' in the theme of 'two faces' by using incongruity of Grotesque. A sense of collision and conflict of the Work VII was expressed by painting and objet technique.

Work VIII, I re-interpreted artwork 'the Pursuit of Oblivion' in the theme of 'death' by using laugh and fear of Grotesque. The Work VIII was made grotesquely by using a mask as an objet. Its emotion of enjoyment and a sense of grotesque are expressed by painting technique.

Although these grotesque artworks may cause visual resistance, I'd like to prove that creative activities are possible unlimitedly.